



2012 노마딕 레지던스-이란
9월 28일-10월 12일

2012 Nomadic Residency-Iran
September 28-October 12
www.incheon-khomeini.com



From Incheon to Khomeini



Heungsoon Im, Sangbin Lim,
Mikyung Song, Jaeyoung Park,
Hyekyung Ham
Organized by Dongyeon Koh



2012 노마딕 레지던시-이란
9월 28일-10월 12일

2012 Nomadic Residency-Iran
September 28-October 12
www.incheon-khomeini.com

From Incheon to Khomeini

Heungsoon Im, Sangbin Lim,
Mikyung Song, Jaeyoung Park,
Hyekyung Ham
Organized by Dongyeon Koh

2012 노마딕 레지던시-이란
인천에서 호메이니까지

‘인천에서 호메이니’까지는 1명의 기획자와 5명의 한국 작가들이 2주 동안(9월 28일-10월 12일) 이란의 각지를 여행하면서 수집하게 되는 물건이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노마딕 팀은 이란의 유명한 바자르등을 방문하였다. 황학동 풍물시장을 연상시키는 테헤란의 금요 시장, 전통적인 바자르 건축물을 비교적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테헤란 타브리즈(Tabriz) 시장, 카샨(Kashan)의 오래된 유적지, 폐허가 되어가는 아비요네(Abiyone)의 길거리 잡화상, 야즈드(Yazd)의 야시장과 쉬라즈(Shiraz)의 바자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장소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하였다. 2012 이란 노마딕 프로젝트의 제목인 ‘인천에서 호메이니’는 한국과 이란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하였을뿐 아니라 2011-12년에 서울 일민 미술관에서 열린 여행과 물질문화의 관계를 다룬 전시의 후속편으로서 기획되었다.

2012 Nomadic Residency-Iran
From Incheon to Khomeini

The “From Incheon to Khomeini” project consisted principally of stories and objects that 1 curator and 5 Korean artists collected as they travelled to various parts of Iran during the two weeks of September 28-October 12. To this end, the 2012 Nomadic team visited Iran’s most famous bazaars. The team focused on places where large numbers of people gathered and communicated, such as Tehran’s Friday Market, reminiscent of Seoul’s own Hwanghak-dong flea market; Tehran’s Tabriz market, where traditional bazaar architecture remains relatively well preserved; the old ruins at Kashan; the street stores of decaying Abiyone; the Yazd night market; and the Shiraz bazaar. The title of the 2012 Nomadic Project, “From Incheon to Khomeini,” comes not only from the names of Korea’s and Iran’s main airports; it was also planned as the sequel to an exhibition held at Ilmin Museum of Art, in Seoul, in 2011-12, on the subj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vel culture and material culture.

목차

5

인천에서 호메이니까지, 고동연

15

떠나기에 앞서: 작가 인터뷰, 2012년 8월-9월
임흥순, 임상빈, 송미경, 박재영, 함혜경

27

남대문에서 바자르까지, 2012년 9월 28-10월 12일
사진: 함혜경, 송미경, 임흥순

35

워크숍: 이란 예술아카데미, 2012년 10월 10일
임흥순: 한국계 이란인 무용수의 이야기 - 40
송미경, 이란의 소리, 색, 바자르 - 44
박재영, 보카이센의 이란 여행기 - 48
함혜경, '이란'을 찾아서 - 52
임상빈, 우정의 체스 - 58
폐회사, 나설 관장과 작가 사부리 - 62

66

후원기관들

68

이란의 화랑들과 기관들

71

참여작가들과 기획자

Contents

5

From Incheon to Khomeini, Dongyeon Koh

15

Artist's Interviews, August and September, 2012
Heungsoon Im, Sangbin Lim, Mikyung Song,
Jaeyoung Park, Hyekyung Ham

27

From the Market Namdaemun to the Iranian Bazaars,
September 28-October 12, 2012
Photographs by Heungsoon Im, Mikyung Song, Hyekyung Ham

35

Workshop at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October 10, 2012
Heungsoon Im, An Ex-dancer & Ex-patriate - 40
Mikyung Song, Iranian Sounds, Colors, and its Bazaars - 44
Jaeyoung Park, The Bokaisen's Travelogue in Iran - 48
Hyekyung Ham, Finding IRAN - 52
Sangbin Lim, Chess in Friendship - 58
Closing Remarks-Mr. Naser and Mr. Sabouri - 62

66

Thanks

68

Galleries and Institutions in Iran

71

Participating Artists and Curator

인천에서 호메이니까지, 고동연

From Incheon to Khomeini,
Dongyeon Koh

From Incheon to Khomeini



노마딕 레지던시는 주로 고전적인 레지던시와 최근 레지던시의 특징들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노마딕 레지던시는 작가의 창작력을 고양하기 위하여 문화적, 국가적 경계선을 넘어선 타문화와 타문화권의 작가들과의 교류를 강조하는 최근 레지던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마딕 레지던시는 작가들이 도시문명으로부터 격리된 오지에서 일정기간 대자연 속에 동화되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레지던시의 모습을 닮아 있다. 대부분의 노마딕의 개념과 연관된 레지던시 결과보고서나 전시회들이 복잡한 미술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작가의 정체성에 초점이 맞추어온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이다.

그러나 2012년 이란에서 진행된 노마딕 프로젝트 ‘인천에서 호메이니까지’는 기존의 국내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노마딕 레지던시들이나 프로젝트들과 차별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란 테헤란을 거점으로 한 이란 레지던시는 일차적으로 유목민의 삶과는 무관해 보이는 도시, 혹은 잘 알려진 관광지를 여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노마딕 레지던시에서 ‘노마딕’은 정치 없이 떠도는 작가들의 물리적인, 정신적인 상태뿐 아니라 그들이 주로 방문하는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목민적인 삶의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속 노마딕 레지던시는 기존 노마딕 프로그램에서 자주 발견되는 탐험적이며 때로는 자아로의 회복과 발견을 꿈꾸는 이상화된 작가상들과도 거리를 두고자 한다. 특히 프랑스의 전시기획자이자 비평가인 니콜라스 부리오^{*)}는 2009년에 열린 테이트 비엔날레 “대안적인 모더니즘”이라는 글에서 노마드의

from other Nomadic residenci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 Above all, the Iran residency, which was based in Tehran, took as its destinations cities and well-known tourist spots – a far cry from the life of nomads. In most residencies so far, the word “nomadic” has been used to designate not only the physical and mental state of artists as they wander around aimlessly, but also the forms of nomadic life discovered in the regions they generally visit. As a result, nomadic residencies among Korean artists often took place in the remote regions in the world to accommodate as well as to experience such uncivilized and untainted ways of life for artists themselves.

This program kept its distance also from such adventurous and idealized images of nomadic artists, most notably theorized by the French curator and art critic Nicholas Bourriaud’s concept of nomad. In his introductory essay for *Altermodern*, the Tate Triennial (2009), Bourriaud proclaims the artist as “cultural nomad;” he posits altermodernism as a

개념을 주창한 바 있다. 부리오의 예술가-노마드 개념에 따르면 대안적인 모더니즘이란 결국 “모든 시간과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현재의 다양한 차원들을 예술적인 형태를 통하여 탐험하게 되는 분산된 긍정적인 경험”에 해당한다.* 문화나 국가의 개념적이고 물리적인 경계를 극복함으로써 지리적인 지식을 새롭게 고찰하고 장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부리오의 현대사회의 노마드가 물론 전지구화된 시대에 가장 적합한 예술가상이라고도 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이 이상화된 노마드적 작가상에 대하여 기획자는 회의적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번 레지던시를 통하여 소통불가, 실패, 시행착오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존의 경계들이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가 멋진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신 우리는 여행 내내 우리의 한정된 역할이나 시선에 대하여 의식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수많은 경계와 차이점들에 직면하면서

“positive experience of disorientation through an art form exploring all dimensions of the present, tracing lines in all directions of time and space.”* Although Bourriaud’s idea of modern-day nomad who re-inscribes geographical understanding and re-invents place by overcoming either conceptual or physical boundaries of culture and nations may seem to be one of the most fitting images of artist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we remain rather skeptical about those idealized concept of artist-nomad. Throughout our residency, we experienced a lot of miscommunications, failures, mishaps, and sometimes antagonism to know how firmly those boundaries remain still intact. That does not mean that we did not have great adventures; instead we become more conscious of our shifting roles and viewpoints. Our intention was to emphasize the perspective of the artists visiting various cities and markets as tourists with no choice but to adopt ambivalent relationships to the foreign culture in contact with which they found themselves:

고무되기도 하고 동시에 좌절하기도 하면서 친구, 관찰자, 우호적인 관찰자, 그리고 불만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레지던시 기간동안 이란인들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들을 취하여 왔다. 철저하게 타문화로 들어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범국가적인 일종의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우정을 나누려는 임상빈이나 송미경의 시점으로부터 이란에 1970년대 초 낙후한 한국을 떠나 이란을 찾은 한국인 무용수 출신 교포를 바라보는 복합적인 작가의 시점들이 등장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못하는 무용수 출신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임흥순은 거리감을 유지해야 하는 관찰자의 시선과 같은 민족으로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연민의 시선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반면 박재영은 철저하게 거리감을 두고 과학자와 같이 이란인들을 관찰한다. 박재영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sometimes as alienated observers, sometimes as friends working hard to communicate despite inadequate language skills, and sometimes as learners attempting to study a new culture.

We see a complex range of artists’ perspectives, ranging from that of Sangbin Lim and Mikyung Song, for example, who attempted to immerse themselves in a foreign culture and share a kind of trans-national humanism, to that of Heungsoon Im as he watches a former Korean dancer who left the backward Korea of the early 1970s for Iran. As he observes the elderly former dancer who cannot bring herself to tell her whole story, Im simultaneously experiences the perspectives of an observer obliged to maintain a distance as well as of natural sympathy for a fellow Korean. Jaeyoung Park, on the other hand, remains thoroughly at a distance and observes Iranians in the manner of a scientist. Park places a Bokaisen, a fabled animal found in both Korea and Japan, in historic sites in Iran, then watches and records Iranians as they observe the creature with

Urban ‘Nomads’

Nomadic residence programs have combined characteristics between the classical artist support programs and the most up-do-date artist international residencies. While Nomadic residencies followed the dominant trends of residencies that have emphasized exchange among artists from different cultures to enhance artists’ creative energy, it also resemble classical residencies in that it allows artists to be isolated from urban civilization to focus on their work in rather isolated settings. It is for this reason, too, that the majority of reports or exhibitions linked to the nomadic concept in Korea has evolved around the introspective and transformative nature of artists’ identities—escaping from the complex art scene, encountering new cultures, and searching for their inner voices in the process.

“From Incheon to Khomeini,” however, attempted to differentiate itself in several aspects

* 니콜라스 부리오(편)저, 대안적 모던, 2009 트레니알, 테이트 미술관, 2009, p. 24.
Nicolas Bourriaud (ed.), *Altermodern: Tate Triennial 2009*, Tate, 2009, p.24

설화의 동물 보카이센(Bokaisen)을 이란인들의 문화 유적지에서 놓고 호기심과 놀라움 속에서 보카이센을 관찰하는 이란인들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작가-관광객은 함께 이란인들과 게임을 지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철저하게 이란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보카이센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는 관찰자로도 남게 된다. (게다가 서구의 경제재제 이후 외국인들의 발길이 뜸해진 이란에서 흔치 않은 외국인인 우리들은 이란인들의 끝없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도시 속 노마딕'은 한정된 시간 동안 타국에서 작가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점을 실험하고 좌절하게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호메이니 공항, 입국절차 / Airport Entry Point, At Khomeini

curiosity and surprise. Here, the artist-tourist may become a friend playing a game together with the Iranians, or may remain as an observer, placed his Bokaisen at a firm distance and watching Iranians' reactions. (In Iran, moreover, which has been less visited by foreigners since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by the West, we ourselves were the object of boundless curiosity on the part of Iranians.) Ultimately, "Nomadic in the City" came to focus on the process of experimenting with and adjusting various perspectives that could be adopted by artists in a foreign country over a limited period of time.

바자르와 이란의 물질문화

‘인천에서 호메이니’까지는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의 후속편이다. 그러나 일민 전시와는 달리 노마딕 레지던시에서 작가들은 스스로가 관광객이 되어서 외제 물건이나 기념품을 사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게다가 이란은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낙타를 이용한 대상인 숙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지였다. 노마딕 팀이 방문한 장소들 또한 이란의 오랜 문화사, 경제사, 문화 교류사의 주요한 무대인 바자르이다. 실제로 테헤란, 카산, 이스파한, 야즈드, 쉬라즈의 도시들에도 어김없이 바자르들이 발달되어 있었다.

바자르에는 오래된 물건, 혹은 오래되어 보이는 듯한 풍물들과 함께 전 세계 소비재 상품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계 물건들, 그리고 한글이 잘못 표기된 한국 상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주물로 뜬 싸구려

Bazaars and Iran's material culture

"From Incheon to Khomeini" is the sequel to the "Up in the Air: From Yeoido to Incheon," an exhibition held at Ilmin Museum of Art in 2011-12. Unlike the Ilmin exhibition, however, the Nomadic residency artists were given the chance to become tourists themselves and buy foreign objects and souvenirs. Iran, moreover, was one of the centers of the Silk Road, lined with frequent lodgings used by camel-driving merchants in the middle of the desert. The places frequently visited by the Nomadic team were bazaars, key places in the long history of Iranian culture, economy and cultural exchange. The cities of Tehran, Kashan, Isfahan, Yazd and Shiraz, too, all have their own bazaars.

On display in the bazaars were old objects, old-looking antiques, objects made in China – which makes just about every product in the world – and Korean products with wrongly-spelt Korean. Cheap die-cast lamps like (Sinbad's lamp). Astrologer's

램프(신밧드의 램프를 연상시키는). 점성술 판. 도너츠 판. 40년 되었다는 체스 말, 그야말로 각종 출처를 알 수 없는 오래된 물건, 혹은 오래 되어 보이는 싸구려 짝퉁 물건들이 바자르에는 즐비하다. 심지어 카산 근처 사라져 가는 민속마을 아비요네의 상징적인 장미문양의 스카프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또한 바자르에서는 서로 다른 기관과 시대의 돈들이 함께 사용되었다. 달러 돈, 정부 리알(Rial), 시장 리알이 함께 통용된다.

특이한 현상은 이란의 많은 관광용품들이 서로 다른 바자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그 또한 중국산이나 타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아비요네(Abiyone)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모두 특산품을 들고 나와서 팔고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타지에서도 팔린다. 함혜경은 이와 같이 특정한 특산품도 없이 점차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아비요네 할머니의 모습에 주목한다. 얼마 남지

boards. Donut boards. Chessmen allegedly 40 years old: all manner of old objects, or cheap, fake objects made to look old, of unknown origin, can be found lined up in bazaars. Scarves featuring the rose that is the symbol of Abiyone, a disappearing folk village near Kashan, turned out to have been made in Japan. Currencies and rate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and eras were used together in the bazaars. These included "government rials(IRR)" and "market rials," each having different rates.

One interesting phenomenon is the way Iran's tourist goods crop up in various different bazaars, and the fact that many of them are made in China or other countries. The old ladies we met in Abiyone do all come out and try to sell local specialties. But most things are sold in other places, too. Hyekyung Ham turns her attention to the old ladies of Abiyone, a place gradually falling into ruin and with no particular local speciality products. She went to the Abiyone region in order to explore her interest in an Iranian minority of which not much remains,

않은 전통적인 이란의 소수민족을 재현하기 위하여 아비요네 지역을 찾았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비어 있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나마 전통문화라고 여겨지는 물건들도 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그러나 아침 일찍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 아비요네에 외지의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버스에는 중국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관광용품을 통하여 재현되는 이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이란의 전통마을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시점에서 파악된 이란의 모습을 진정한 이란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야즈드(Yazd)에서 발견한 이란 인형은 이란인들 스스로 서구가 바라보는 매혹적이고 타자화된 이란 여성의 모습을 현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들게 한다.

but most of the homes were empty and only elderly people remained in the village. All the objects regarded as part of traditional culture are from outside Abiyone. Early in the morning, tourist buses from other places arrive at this decaying village. The buses are marked with Chinese characters. The Iran reproduced in the tourist items, and the traditional Iranian folk village disappearing into history, raise questions about which image, understood from whose perspective and for the sake of whom, constitute the genuine Iran. Iranian puppets we found in Yazd make us wonder if they are not manifestations of an image of Iranian women, charming and "otherized" in the eyes of the West, produced by Iranians themselves.

이란인들과 소통하기

관광객으로서 이란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이란 노마딕 팀은 이란인들과 친해지고자 노력하였다. 워크숍 당시 이란의 작가들과 물물교환을 하기도 한다. 워크숍 이후의 비빔밥을 만들고 이란인들과 물건들을 교환한다. 이란 작가는 덕담이 쓰인 편지를 한국의 모든 작가들에게 전해주었다.

특히 임상빈은 안양공공미술작업을 통해서도 실현된 지역 주민들과 친해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기원에 해당하는 이란의 체스 기관을 방문하고 이란인들과 체스를 두는 과정에서 되도록 통역이 없이 소통하기 위하여 임상빈은 이란의 숫자와 기본 언어들을 익혔다. 옷도 이란의 전통 복장을 착용하였다. 물론 외형적인 모습이 임상빈을 이란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임상빈은 체스를 통하여 이란의 교수로부터 버스에서

만난 젊은 청년, 테헤란 도심 라리(Laleh) 공원의 할아버지와 체스를 두었다. 그리고 우정의 표시로 임상빈은 할아버지들의 오래된 체스와 자신의 새 체스말(Chess piece)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란인들과의 소통이 모두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강남의 테헤란로의 유사한 버전인 테헤란의 서울로는 일반인들의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임흥순은 본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테헤란 시내에 살고 있는 한국인 무용수 출신의 할머니를 인터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970년대 이란에 온 점도 신기했지만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 무용수 출신의 할머니는 1960년대 미군부대, 1970년대 초 베트남 전쟁에서 솔로리스트로 활동하였다. 이제까지 작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온 베트남 전쟁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자신의 이미지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다. 임흥순 작가는 그녀의 모습대신에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란인 남편과 찍은

Communicating with Iranians

Given their perspective of watching Iran through the eyes of tourists, the Nomadic team worked to get closer to Iranians. During the workshop, they exchanged goods with Iranian artists. Afterwards, they made bibimbop and exchanged gifts with Iranians. The Iranian artists gave all their Korean counterparts letters wishing them well.

Sangbin Lim, in particular, had previous experience of working to get closer to with local residents through Anyang Public Art Project(APAP). In the process of visiting Iran's chess institute, the equivalent of Korea's World Taekwondo Headquarters, Lim familiarized himself with Iranian numbers and basic language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his opponents as much as possible without an interpreter. He also wore traditional Iranian clothes. His external appearance, of course, did not make Lim into an Iranian. Through chess, however, he met an Iranian professor, a young man on the bus and an

old man in Laleh Park in central Tehran. As a sign of friendship, he exchanged old men's chessmen for his own new ones.

Of course, not all communication with Iranians went smoothly. At Seoul Street, a place in Tehran similar to the road named Tehran-ro in Seoul, ordinary members of the public are not allowed to take photographs. Heungsoon Im altered his original plans and decided to interview an elderly Korean former dancer who lives in Tehran. The fact that she had moved to Iran in the 1970s was unusual enough, but during the interview it also emerged that she had been a soloist at US military bases in the 1960s and during the Vietnam War in the early 1970s. She was intimately connected to the history of the Vietnam War, a subject with which Im had previously dealt intensively in his work and exhibitions. She did not actually want her image publicly revealed, however. Instead, Im shot faded photographs the lady had taken with her Iranian husband in their younger days, and the inside of her

희미한 사진, 그리고 그녀의 실내를 찍었다. 같은 한국인이며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이 굴뚝같지만 결국 이란의 복잡한 정치적인 현실, 완전히 이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녀의 처지 때문에 한국계 이란이 무용수 할머니와의 대화 속에는 친밀함과 거리감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리감을 작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부재하지만 흔적이 배인 정원, 실내 사진을 통하여 전달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박재영의 작업에서 주인공은 그가 들고 온 보카이센과 이란인들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작가는 설화 속 동물인 보카이센이 어떻게 이란의 전통문화와 조우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다. 그는 과학박물관에 들어서 이란에서 만들어진 고대 건전지 타입의 유물에 보카이센을 연결시키려다 저지당한다. 그리고 그는 보카이센을 들고 옛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불의 성전에 놓는다. 관광지에

home. She was anxious to communicate with fellow Koreans but, ultimately, because of Iran's complex political reality and her position as neither entirely Iranian nor entirely Korean, Im's dialogue with the elderly, ethnically Korean, Iranian dancer was one of both intimacy and distance. The artist has attempted to convey this sense of distance through photographs of the elderly lady's garden and home interior, which contain traces of her, in the absence of images of the subject herself.

The progenitors of Jaeyeong Park's work, finally, are the Bokaisen he took with him and the Iranian people. Or, to be more precise, the artist observed how the Bokaisen, a mythical creature, would come into contact with Iran's traditional culture, and how Iranians would react in the process. During his field trip a science museum, Park tried to connect the Bokaisen to a type of ancient Iranian battery-type relic, but his attempt was discouraged. He, then, placed his Bokaisen in a Zoroastrian fire temple in Yazd, a place of worship in the national religion

해당하는 불의 성전을 구경 온 이란인들과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쥐, 고양이, 강아지 등의 여러 익숙한 동물을 섞어 놓은 듯한 보카이센의 존재에 관심을 보인다. 작가는 그러한 모습을 조용히 기록한다. 왜냐면 보카이센의 기이한 형태가 이란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언젠가 변형된 또 다른 동물의 등장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작가는 문화적 혼용에 관심을 두기는 하지만 이란인들과 소통하는 임상빈이나 이란인들과의 소통에서 좌절된 임흥순과는 달리 이란인들을 관찰자의 눈으로만 바라보고자 한다.



공사중인 페르세폴리스 / Persepolis under Repairment

of ancient Persia. Iranians and tourists visiting the temple of fire, the popular tourist spot, showed serious interest in the Bokaisen, which looks like a natural mixture of familiar animals such as a mouse, cat and dog. Park quietly recorded people's reaction. He did thi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emergence of other mutated animals after rumors spread among Iranians of the Bokaisen's strange form. Here, the artist's preoccupation rests on the mixing of cultures but, unlike Sangbin Lim, who communicated with Iranians, or Heungsoon Im, who was frustrated in his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a Korean-Iranian ex-dancer, Park attempted merely to watch Iranians through the eyes of an observer.

인천에서 호메이니까지

From Incheon to Khomeini

주사위와 별자리 판

14일은 낯선 곳을 방문하고 그곳의 문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리 짧지도,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자신의 고향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긴 여운을 갖게 할 정도의 시간은 된다. 실상 일민미술관에서 행해진 이전 전시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에서 등장하는 갖가지 관광용품들은 두고 온 자신들의 발길이 스친 곳과 시간을 간직하려는 부질없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파한에서 구입한 주사위와 별자리판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사위와 별자리판(은이란의 점쟁이(fortuneteller)들이 사용하던 것을 이스파한의 바자르에서 눈썰미 좋은 임상빈 작가님이 찾아준 것이다. 이 물건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란에서 방문하였던 별자리를 사용하였던 점쟁이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유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결국

Dice and a Planisphere

When it comes to visiting a strange place and understanding its culture, 14 days is neither a particularly long nor a particularly short time. It is, at least, long enough to leave visitors with lingering images of the destination, albeit not as clear as those of their home country. The various tourist products that appeared in “Up in the Air: From Yeoido to Incheon,” the earlier exhibition at Ilmin Museum of Art, were part of vain efforts to hold onto the places and times the artists had left behind after the briefest of passing visits.

That is why I want to introduce the dice and planisphere that I bought, last of all, in Isfahan. These objects, used by an Iranian fortuneteller, were discovered by sharp-eyed Sangbin Lim in Isfahan’s bazaar. The reason I want to introduce them is that I feel that the role of the fortuneteller that I visited in Iran, who used star signs, was similar to my own. Nomadic, ultimately, is about forcing one’s way

노마딕이란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들을 헤쳐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큐레이터란 함께 하는 작가들의 심리 상태와 바램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격려의 말을 해주는 ‘전문인’이다. 점쟁이들이 손님들에게 예언을 가장하여 덕담을 해주는 과정이 14일 동안 나의 과정이나 역할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앞으로 워크숍으로 선보였던 작품들이 귀국 후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되기 위하여 유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별자리판과 주사위 / Dice and a Planisphere

through unexpected circumstances. And a curator is a “professional” who grasps the psychological states and hopes of the artists together with whom he or she is working, and offers them appropriate words of encouragement at the appropriate time. The process of fortunetellers offering their clients good wishes disguised as prophecies is not all that different from the process or role that I underwent or played over those 14 days. I hope I will be able to play a similar role in ensuring that the objects presented at the workshop become yet more concrete and continue to develop my commitment with that role after our return to Korea.



벨트 위의 짐 / Luggage on a Belt



버스역에서 / At the Bus Station



호메이니 공항 / At Khomeini Airport



쉬라즈 공항, 승무원 / At Shiraz Airport



이란 영자신문,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2012. 9. 29 / Iranian Newspaper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광경 / From the Airplane



호메이니 공항 / At Khomeini



큐레이터의 생필품, 볼펜들 / Curator's Pens



큐레이터의 생필품, 이란 명함들 /
Curator's Name Cards



쉬라즈 공항 / At Shiraz Airport



봉고택시 / The Taxi Van

떠나기에 앞서:

작가 인터뷰, 2012년 8월-9월

임흥순, 임상빈, 송미경,

박재영, 함혜경

Heungsoon Im, Sangbin Lim,

Mikyung Song, Jaeyoung Park,

Hyekyung Ham

Artist's Interviews, August and September, 2012

임흥순
사랑의 테헤란로



임흥순, <나의 신사문화답사기>, 2001
My Exploration of Shinda-Dong Culture, 2001

Heungsoon Im
Tehran-ro in the Mood of Love



1970년대 말 중동 붐과 함께 이란의 테헤란 시장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서울과 테헤란에 서로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한국직원과 이란직원의 우연한 만남으로 사랑이 시작됩니다. 너무 먼 거리, 서로 다른 생활환경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거리 이름을 교류한 1977년의 6월 17일 이후 각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러브레터로 주고받는 식이죠. 이 편지 안에 종교와 음식에 관한 당시 일상과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각 나라에 대한 상상의 이미지를 가상으로 만들어보는 것이지요. 작업 형식은 가상 아카이브, 연애사 연작사진, 에세이 영화 등등. 작품명은 <사랑의 테헤란로>입니다. ‘한국사람 이란사람’ 인터넷 사이트와 <추억의 테헤란로>라는 트로트 노래 제목을 보다가 몇 자 적어봅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여성과 노동’에 관련해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여성과 음식’ 해도 좋습니다. (작가 스테이트먼트)

In late 1970s, with the advent of the Middle East Construction boom, the mayor of Tehran visited Seoul and agreed to name Seoul-ro and Teheran-ro, respectively, in each city. My project evolved around the accidental meeting and love shared between a Korean and Iranian staffs involved with this project. And this is a story about the love that could not be fulfilled, due to the geographical distance as well as differences in living conditions. For instance, they are supposed to begin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through letters from June 17, 1977, the date that the two mayors agreed to share names; in the letters, they can talk about their own countries of Iran and Korea. I would also like to create the imaginary images of Iran and Korea by including stories about religion, foods, and everyday lives of these two countries. The final outcome will be comprised of the fictional archives, serial photographs of love stories, essays, and movies. The title was inspired by “Tehran-ro in my mind” I got ideas from the web-site Korea/Iranian and the title “Tehran-ro in my mind” of the popular song. I can also do a workshop related to Women and Labor; or simply Women and Food is fine, too. (Artist’ statement)

Q: 이번 전시의 주제는 결국 특정한 시각문화, 혹은 물질문화와 장소(도시)에 관한 것입니다.... 신사동 답사기에 대하여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시게 만드셨는지요?

A: 서울은 세계 큰 도시들처럼 빌딩으로 숲을 이루고 인구 천만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현대 도시가 탄생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서울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면 강남은 서울을 대표하는 부자 도시죠. 한국의 경제발전과 부의 형성과정이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신사동이나 테헤란로는 서울의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2년 만든 <나의 신사문화답사기>는 이러한 도시형성 과정에서 놓친 것들, 만들어진 이미지들, 예를 들자면 키치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약간은 풍자적으로 강남을 이야기 해보고자 했습니다. 요새 유튜브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하기도 합니다. 키치, 욕망, 저급문화 등...

Q: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is about specific visual culture, material culture, or place(city).... You showed me your previous project ‘My Exploration of Sinsadong Culture’, and I am wondering what make you create such project.

A: Seoul is, like any other huge international metropolises, made of a forest of buildings, and its population is well over 10 millions. It might be unusual, historically, to find a modern metropolis established from such a short period of time. If Seoul is the representative urban center in Korea, Gangnam is the area that is equally the representative of Seoul. It is also the place that can well illustrat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wealth in Korea, in a compressed manner. Shinsa-Dong and Teheran-ro both located in Gangnam. In the project “My Exploration of Shinsa-Dong Culture,” I would like to satirically talk about Gangnam—its missing elements throughout the process of urbanization, fabricated images, kitsch elements. Psy’s song “Gangnam Style” that attracted a huge popularity in U-Tube, in some way, shares the same images—Kitsch, desire, lower culture....

Q: 그렇다면 이란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란의 도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이란이란 도시에 대하여 많이 알고 싶으신가요?

A: 페르시아 문명의 발상지 정도만 알뿐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붕쇄로 한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예측할 뿐입니다.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만들어진 나라중 한 곳 입니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만큼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우리에게 비해 덜 개발되고 덜 재건축되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작가 인터뷰)

Q: So then, what are you expecting to experience in Iran, now? Do you know a lot about Iranian cities? In which aspect, you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Iranian cities?

A: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ran, except that it is the origin of the ancient Persian civilization. I just assume that Iran might be economically struggling, compared to Korea, due to the US’ and EU’s recent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n. I guess it might be bit dangerous.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heavily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We established a lot, including accelerated economic development, but I also believe that we lost a lot—as much as we gain some wealth.... Since Iran is least developed and relatively less reconstructed, I hope they still retain some of things that we had lost in Korea. I become curious about what they preserve, what these remaining culture would like. (Artist’s interview)



임상빈, <알 이야기> 드로잉, 2012
<Story of the Egg>, 2012

Q: 왜 체스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A: 체스 생각은 근래 빠져든 새로운 취미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더 근원적인 호기심은 소설 (『고양이를 안고 코끼리와 해엄치다』, 오가와요코, 권영주 옮김, 현대문학)이 가이드 역할을 한 것이구요. 체스로 시를 쓴다는 멘트에 현혹된 듯...
이런 사연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나름의 연구가 시작됐죠. 처음엔 뒤샹과 에른스트가 디자인한 기물들을 살펴다가 뒤샹이 토너먼트에서 두었던 기물들을 복기하며 뒤샹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죠. 아트적 공유는 힘들지만 체스사고는 링크될 것 같은 환상이 들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자연 체스세계에 빠져 폭염을 견디는 수단이 되기도 하더군요....



체스판과 체스 말 / Traditional Chessboards and Pieces

Q: Why do you become interested in chess for your project?
A: The idea of chess originates from my new hobby. It can also go back to the novel ‘Swimming with an elephant while holding a cat’(Okawa Yoko, translated by Youngjoo Kwan, Modern Literature), which serves as a guide. I might be intrigued by the idea of writing a poem with chess game....
I began my research through this incidence. Initially I would like to share Duchamp’s idea, observing the objects designed by Duchamp and Ernst and copying Duchamp’s guibo used in his tournament. It might not be easy to translate such outcome into artistic communication, but I got a fantasy that it seems to have potential linkages to chess strategies. It naturally puts me into the world of chess to survive the intense heat of summer.

Q: 체스에 참여하실 분들을 어떻게 모을 생각을 현재는 하고 계신지요?
A: 아직 미정입니다만, 방향을 열어놓고 접근해볼 예정입니다. 일대대응 방식으로 저와 제가 이동 중에 잠깐씩 만나는 이란인들을 한 수씩 두게 요청하는 방식(moving chess), 이란의 마스터를 초빙해서 체스에 대해 대화하는 퍼포먼스(talking chess), 장인(대장간이나 유리세공, 흙벽돌 등)을 만나 함께 만드는 체험(homofaber: 참고로 제 게임 아이디어입니다^^)
아마도 참여자를 모으다기 보다는 우연적 만남에서 이뤄지는 즉흥적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행자 신분의 활동이란 점을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요. 방학 중에 봉천동에 있는 체스클럽에서 오프라인 토너먼트를 참여했었는데요, 재밌게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상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체스 레이팅과 수에 대한 관심만 있는거죠. 나이, 직업은

Q: What is your current plan for gathering chess participants for your project?
A: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but I am open to many possibilities: the one vs multiple method, in which I can move around chess matches and require the moving chess to Iranians; I can invite an Iranian chess master to have a talking-chess performance; I can meet and work with an Iranian craftsman at a blacksmith workshop, a glass workshop, or mudmaker’s workshop to throw a kind of “homo faber chess.”
However, I would like to focus on accidental meetings and interactions out of randomness—rather than stigmatically gathering participants. I would like to very much use my status as a traveler. During the last vacation, I participated at an open tournament of the chess club at Bongchun-Dong. But at the tournament, no one asked about each other and was very boring. Usually, people hardly asked any questions; they became only interested in chess ratings and tactics. The information about player’s age and occupation became meaningless.

쓸모가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란에서도 어찌면 언어장애로 인하여 체스 기물들의 움직임만으로 교감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은 너무 자의적인 것은 아닐지... 그래서 체스 기물을 사람의 성향으로 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군요.
Q: 체스말은 어떤 것을 쓰실런지요. 직접 디자인하실 건가요?
A: 작가 입장에서는 먼저 물질의 영역과 디자인적 상징에 관심이 가다보니 만드는 일부터 시작이 되더군요. 먼저 시작한 디자인은 브랑쿠시 조각을 미니어처로 만들었고, 이것은 또 다른 전시 아이디어인데요, 카페에서 <미술을 배웁시다!>라는 주제로 체스와 미술사를 믹스한 인터랙티브 컨셉입니다. 교양미술을 강의하다보니 예술교육의 한계를 체감하는지라 좀 재밌는 방식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체스와 연동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작가 인터뷰)

Perhaps, due to the linguistic barriers, I can communicate with them only by the movement of my chess pieces. Or, the idea might be too artificial. I am not sure, but I cannot help but having a tendency to observe chess pieces only based upon the people’s propensities.
Q: What kind of chess pieces will you use? Will you design chess pieces on your own?
A: From artist’s perspective, who is always interested in the realm of materialism and the imagination related to visual design, the concept originates from the plan to make things. The first design was like a small miniature sculpture in the style of Brancusi, and it was part of an idea for the different exhibition. At cafe, I developed an interactive concept of workshop to combine chess games and art history under the title of “Let’s learn art.” While I was teaching art as part of general culture courses, I deeply felt about the limitation of typical art education methods, and I was looking for more interesting ways to teach art. (Artist’s interview)

송미경
소통하는 소리와 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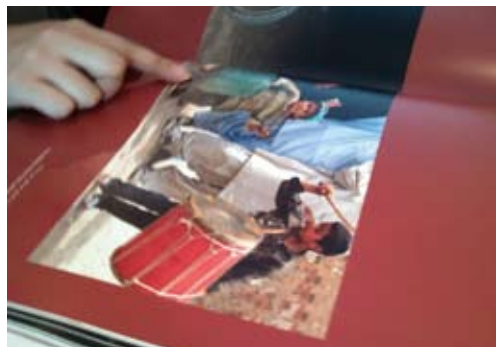
악기 컬렉션 / The Collection of Musical Instruments

작업은 공간에 대한 이미지 및 시간적인 기록형태로서 만들어질 것이다. 내가 가는 길목 걸음 위치 모든 것을 사진으로 기록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사건마다 그것의 독특한 성질과 특징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걸 바라보게 되는 타인과의 마주침이 만들어지고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그건 바라보는 타인의 차이일 것이다.

또한, 음악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악기만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악기인 피리 소리뿐 만 아니라, 태평소 및 이란의 음악은 주로 타악기의 리듬적인 부분이 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악기인 장구, 팽과리 등 타악기를 가져갈 예정이다. 그들과 하나의 리듬, 장단을 통해 함께 원초적인 소리에 대한 교감을 녹음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 또한 녹음하여 기록할 예정이다. 이 기록된 녹음은 후 작업으로도 만들어질 것이다.

(작가 스테이트먼트)

Mikyung Song
Sounds and Instruments in Accord



이란 민속음악 책 / Books on Iranian Folk Music

My work will be comprised of the medial installation and photographs that captures space and temporal progression. Through the photographic records of every steps and corners that I come across, the viewers can experiences unique natures and traits of every moments in our lives. Through this, interactions among different individuals can be realized—or not realized; it also depends on the differences among individuals.

In music, performance cannot be completed with one musical instrument. Not only the sound of Piri, I will bring traditional Jjangu, Geanggwari in addition to Taepyungso, most of which are rhythmic instruments. Rhythmic parts performed by percussions constitute most of Iranian music. I will record our(me and Iranian musicians) mutual accord in primitive sounds through unified rhythm and timing as well as our conversation. This record will be developed into the final musical piece.

(Artist' statement)

Q: 음악, 공연예술에서 시각예술로,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와 이란 문화로 연결되는 점점에 계신데 서로 다른 영역을 아우르시는 것이 어르신지요?

A: 예술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어떤 관점으로 풀어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과 공연예술 그리고 시각예술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보여 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관객과 관람객 등의 단어의 형태만 다를 뿐 동일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 전통문화와 이란의 전통문화에 있어서도 비슷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리듬, 악기, 연주형태 등 다른 것 같지만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도 어우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지만,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서로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Q: Your work is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music, performance art, visual art, and even traditional arts. What is your experience as an artist working with different artistic areas?

A: It is all determined by how to interpret my perspective in artistic commonality. Music, performance art, and visual art are similar with each other because they are all intended for display to someone. The places of showing the works are different, yet it is more likely limited to the difference of the audience and viewer; they are eventually same. There are also overlapping elements in traditional Korean and Iranian traditional music. Rhythm, instruments, and the shape of instrument all appear different at first, but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Therefore, depending on approaches and perspectives, I believe that I have the power to work in different areas. Even if it is not easy, I hope that I can achieve it by dealing with the primitive elements of each area and culture.

Q: 현재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요?

A: 사운드 퍼포먼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퍼포먼스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또한 전시에 일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작가 인터뷰)

Q: How does your work progress these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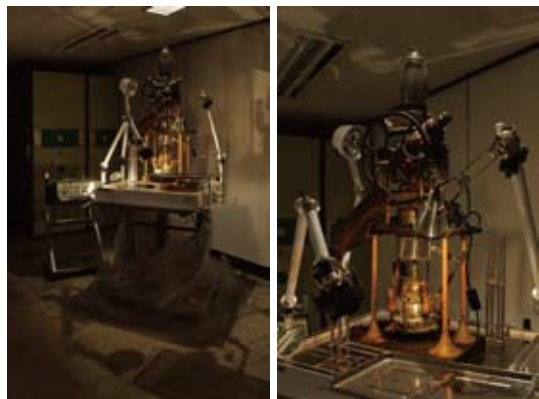
A: I am now preparing sound performance. I considering bringing the result to Iran as part of my installation. (Artist's Interview)



송미경, 백남준 아트센터 2009
Mikyung Song, Installation View, Namjun Paik Art Center, 2009



Jaeyoung Park
The History of Science That Became a Myth



나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설치를 하고 있다. 이야기는 일상에서 찾아낸 판타지이며, “피동적인 군중”과 그들을 조종하려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다. 공간설치에는 중국산 가짜 상품이나, 사기, 골동품 위조에서 쓰이는 수법이 적용되어 관객을 현혹시킨다...

2005년 겨울, 한국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 국민적 지지를 받던 한교수의 논문조작사건이 그것이다. 나는 우연히 그를 중심으로 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종교와 유사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이 우리(대중)를(을) 믿게 했는가?’ 나아가 “어떻게 인공적으로 믿음을 생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다. 나는 지지자 단체에 위장 가입하거나, 법원에서 사기사건기록을 몰래 복사하면서 우리 주변 험잡꾼(trickster)들의 비법을 학습했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조건의 결합만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형성된다는 “인공믿음설(artificial belief hypothesis)”을

I made installations based upon storytelling techniques. I got stories from what I call the “everyday fantasy,” and most of them are about “the passive crowd” and a person who would like to control them. In my installations, I appropriated faked consumer products made in China, or strategies used by con-artists or technique in forging faked antiques, with an aim of manipulating my aud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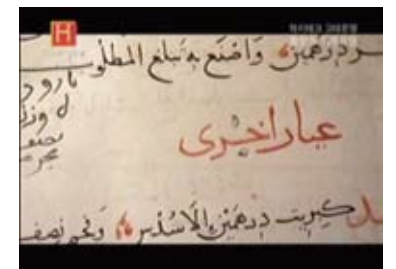
In the winter of 2005, shocking incident occurred in Korea. It was the forgery of a dissertation of one scientist who had been enormously revered by Korean people. I happened to realize that the supporters of this scientist shared a belief comparable to the one shared among the devoted people in religion. Through this process, I become curious about the following: what does make this crowd to have such a strong belief? Moreover, how can an artificial belief be constructed and manipulated? I got into a support group as I disguised myself as one of his followers; I copied the cases of forgeries

형성한다. 내 전시장은 언뜻 “박물관”이나 “동물실험실” 같이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장이다.

나는 이번 “이란 레지던시”를 통해서 그간 준비해 왔었던 the island project 중 일부를 시작하고자 한다. The island project는 가상의 섬 이야기로, “역사적으로 존속되지 못한 것”(ex 증기기관, 사멸되어간 기술이나, 신화)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발전해 왔다는 설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작가 스테이트먼트)

from the court library to learn more about special strategies of tricksters. Through my research, I concluded “artificial belief hypothesis,” a theory about human beings who could easily form their belief by combining a few conditions. My exhibition may resemble the typical sight of museums or biology labs, yet it was indeed the laboratories to examine and prove my hypothesis.

Through this residency in Iran, I would like to prepare for “the island project,” a project that I had planned for years. “The island project” begins with the story of a fictional island and the idea that forgotten things in histories such as a steam engine, technologies in extinctions, and myth are developed in a fictional, enclosed space (of the Island). (Artist’s statement)



페르시아 과학 역사에 관한 영상
TV Documentary on Persian History of Science

함혜경
 이란에서부터 온 편지와 엽서들



1970년대 이란 사진 아카이브
 The Archive of Iranian Photographs in the 1970s

언젠가 제 이란친구가 이란에 대한 편견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펍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남자들이 말을 건다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너무나 흥미로워하며 이것저것 묻지만 이란에서 왔다고 하면 아 그래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뉴스나 인터넷기사 너머에 살고 있는 이란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친구의 나라를 방문해서 알게 된 이야기 또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현재 관심사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유행하는 가벼운 이야기부터 물건까지. (작가 스테이트먼트)

Hyekyung Ham
 Letters and Postcards from Iran



My Iranian friend once told me the people's prejudice against Iran in Europe. Men usually ask me if I am drinking in a pub. At first, they became very curious about me if I told them I came from Persia and ask me many questions; but I told them I came from Iran, they became less interested and disappeared. I myself am interested in Iran in news and internet as well as contemporary Iranian people. I am planning to make the media work made of stories of people I come to know in Iran, a country of my friend, and interviews. I will focus on their contemporary interest more than their myths—from very trendy stories to small objects (Artist's statement)

Q: 엽서를 받아서 할 생각을 왜 하시게 되셨는지요?
 엽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A: 제 이전 작업 때문에 엽서에 더 의미를 두시는 건지요? 제가 엽서를 좋아하고 또 수집하는 것은 사실, 사진을 잘 찍지 않는 제 습관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수집한 엽서들은 관광지의 전경이나 랜드마크를 담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그림이거나 의미 없는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보편적인 의미로 엽서를 산다기보다는 제 취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엽서 한 장에는 실제와 편집된 이미지간의 커다란 갭이 존재합니다. 가보지 못한 곳의 엽서를 한 장 받았을 때의 설렘과 실제로 그 장소를 마주했을 때의 실망감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된 그림이나 죽은 사람의 초상화가 담긴 엽서를 삽니다. 벽에 걸린 누군가의 인생을 산다는 기분으로.

Q: Why do you become interested in postcards?
 What is your overall idea for postcards?

A: You seem to focus on postcards because of my previous works, don't you? The reason why I like postcards and collect them is because I have my habit of not taking photographs. But later I found out that most of postcards in my collection does not have the scenery of tourist attractions and landmarks. Most of them are from old pictures or are meaningless images. This is due to my personal taste as I rather do not purchase them for more universal reasons (of tourists). There are huge gaps between the image within postcards and real images of places. I become very familiar with expectations whenever I get new postcard of somewhere that I have never visited as well as disappointment when I literally encounter the place. Instead, I purchase really old pictures or the postcards having the portraits of the death—as if I am living someone else's life in portraits on the wall.

Q: 그 친구와는 어떠한 관계에 계신지요?

A: 런던에 살던 시절 알게 된 친구입니다. 그녀는 제게 이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준 친구입니다. 맥주를 마시며 자신의 전남편이 얼마나 형편없는 남자였는지, 자신의 결혼생활이 실패로 끝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하더군요. 덤프트럭을 이용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이란인들이 마약과 알코올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습니다. 음주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술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전형적인 이란여성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Q: What kind of relationship you have with your friend?

A: This is a friend that I know from London. She make me to have different perceptions about Iran. At a pub, she explained how horrible her ex-husband while we were drinking and she said that it was lucky that her marriage ended. She did a business using dumbstruck, but it was very difficult to run a business in Iran. She also told me that a lot of Iranians are struggling with drugs and alcohols. Although drinking liquors are legally prohibited, but it is not difficult to purchase liquors. In my opinion, she might not be the typical Iranian woman—perhaps.

Q: 한국에서 어떠한 준비해 가실 예정이신지요?

A: 이란에 대한 인상은 런던에 거주하던 때 만났던 이란친구와 뉴스로 접했던 것들이 전부라 얼마 전부터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아쉬가르 파르하디 감독의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 (Nader And Simin, A Separation, 2011)가 인상적 이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딸의 유학문제를 두고 벌인 사소한 다툼을 다룬 영화인데 이란인의 종교관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다른 작가 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리서치를 하던 중 알게 된 이란현지의 사정을 기초로 이런저런 작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작가 인터뷰)

1960-70년대 이란 젊은이들, 작가의 사진 컬렉션에서
The Iranian Youth in the 1960s and 1970s,
From Artist's Photography Collection



Q: What are you preparing from Korea before you leave?

A: My impression of Iran is all from something that I come across through my Iranian friend whom I met in London while I was living there as well as news, and therefore I began to research about Iran. One of the most notable things was the movie "Nader And Simin, A Separation"(2011) directed by Asgard Farhadi. The movie evolves around the couple, who has an old mother, yet has series of small fights over their daughter's plan to study abroad. I would like to recommend this movie as I can observe the religious belief of ordinary Iranians and their ways of life. I am thinking of many possibilities based upon some of research knowledge about the circumstances in Iran. (Artist's interview)



남대문에서 바자르까지, 9월 28~10월 12일

사진: 함혜경, 송미경, 임흥순

Photographs by Heungsoon Im, Mikyung Song,
Hyekyung Ham

From the Market Namdaemun to the Iranian Bazaars, September 28~ October 12, 2012



동대문 시장
Market Dongdaemun,
September 24, 2012



옷감 샘플 / Fabric Sample



구슬 / Beads



리본



옷감



리본



인형



술



포목상



아사



한복 샘플

남대문 시장
Market Namdaemun,
September 24, 2012



모형 음식



냉장고 자석



먹거리



무화과



미니어처 가구



미니어처 건축 조형물



이란 풍의 램프



청과상



만작이는 것들



전통 캐릭터



추석, 송이버섯



샤이니



전통 공예



티셔츠



신발



전통 인형



홍삼 종류



이란 풍인 것



종이 공예



홍삼캔디

프라이데이 마켓
Friday Market, Teheran,
September 28, 2012



상인들



손목시계



신발



열쇠



팔라비왕조 돈



호리병



19세기 거울



이슬람 남여 문고리



골동품



은제품



봄비는 행인들

테헤란
Teheran Street Vendors,
September 28~October 1, 2012



수퍼마켓



이란 요거트



이란 약혼식장



한국 핸드폰

카산, 아비요네
Kashan and Abiyone,
October 2~3, 2012



수박



양파



남녀 문고리



제단



노점상 할머니



전통의상



전통 무화과 옛

이스파한
Isfahan,
October 3~4, 2012



신발



골동품 반지 진열장



호리병



풍물상의 그림



전통 타일



장남감



장남감



양고기



골동품



수저

야즈드
Yazd,
October 4~5, 2012



마네킹



등잔-팔레비



이란 담배가게



이란 전통인형



도장장인 사진



포목상



차도르 마네킹



디저트



대상인숙소-부적

쉬라즈
Shiraz,
October 6~8, 2012



전통 공예



야시장



야시장



야시장

돌아와서, 테헤란
Teheran Tabriz and More,
October 11-12, 2012



이란 견과류와 향신료



이란 견과류



비너스



알라의 이미지



중국 시장의 신라면



추석 품물시장



고추



청과상



청과상



청과상



청과상



테헤란 정육점



드라마 동아 포스터



차도의 꽃 상인

워크숍: 이란 예술아카데미, 2012년 10월 10일

Workshop at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October 10, 2012

Workshop at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October 10, 2012

2012 노마딕 레지던시 워크숍 일정

일시: 2012년 10월 10일 오후 2:00-5:30

장소: 이란 예술아카데미 음악의 방과 컨퍼런스 홀



- A. 오프닝 공연 (2:00-2:45)
- 이란 예술아카데미측 연설
 - 송미경, 피리 연주와 한국 전통음악 소개 (이란 연주가 하미니와의 합주)
- B. 노마딕 레지던시 보고회 및 워크숍 (2:50-4:30)
- 고동연, 노마딕 프로그램 한국측 기획자
 - 노마딕 레지던시의 개요와 여행보고

작가 프리젠테이션

“나의 기억과 내가 접한 이란의 (물질)문화”

- 임흥순, 한국계 이란인 무용수의 이야기
- 송미경, 이란의 소리, 색, 바자르
- 박재영, 보카이센의 이란 여행기
- 함혜경, ‘이란’을 찾아서
- 임상빈, 우정의 체스

폐회사

- 나설, 사마 문화예술기관 관장
- 사부리, 이란 예술가 대표

- C. 물물교환 (4:30-5:30)
- 이란 작가들이 한국 작가들을 위하여 만든 선물과 편지 전달
 - 한국 작가들이 이란 작가들을 위하여 마련한 선물을 전달하고 서로의 선물에 대하여 설명

- D. 워크숍 후 행사 (5:30-7:00)



워크숍: 이란 예술아카데미

Workshop at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October 10th, 2-5:30 pm

Place: Music Room and Conference Hall,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 A. Opening and Music Performance (2:00-2:45)
- Opening Remarks,
A. Firouzzadeh, The Director of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 Music Performance,
Mi Kyung Song, Piri(Korean Flute) and The introdu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 B. Report of Nomadic Residency (2:50-4:30)
- Dong-Yeon Koh, Curator of Korean Nomadic Team, The Overview of Nomadic Residency and the Travelogue.

Artist's Presentations,

“My Memories and Iranian (Material) Culture”,
followed by their Art Projects inspired by 2012 Nomadic Residency in Iran.

- Heungsoon Im, An Ex-dancer & Ex-patriate
- Mikyung Song,
Iranian Colors, Sounds and Its Bazaars
- Jaeyoung Park, The Bokaisen's Travelogue in Iran
- Hyekyung Ham, Searching for 'IRAN'
- Sangbin Lim, Chess in Friendship

Closing Remarks:

- Mr. Naser and Mr. Sabouri

- C. Gift-Exchange (4:30-5:30)
- Iranian artists present their gifts and explain about them
 - Korean curator and artist will present their gifts (from Korea)

- D. After the Workshop, Food Exchange (5:30-7:00)
- Korean artists bring Bibip-Bop, a traditional Korean dish, and Iranian Artists bring their food to share with.



Workshop at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오프닝 공연
Opening and Music Performance (2:00-2:45)



송미경 / Mi Kyung Song



피루즈 박사의 설명 / Dr. Firouz



합주 / Duet

노마딕 레지던시 보고회 및 워크숍
Report of Nomadic Residency (2:50-4:30)



고동연 / Dongyeon Koh



임상빈 / Sangbin Lim



나설 사바 관장 / Mr. Naser



임홍순 / Heungsoon Im



이란 작가들 / Iranian Artists

임흥순
한국계 이란인 무용수의 이야기



3. 나는 최근에 결혼한 주부, 할머니세대 등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작업하고 있다. 말을 잃어버린 한국의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를 러브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직접 와서 본 테헤란의 ‘서울로’는 접근이 쉽지 않고,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4. 그러던 중 김인순 통역사에게 1970년대 이란으로 무용 공연을 왔다가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오신 분들 중 두 분의 경우 베트남 전쟁터에 위문공연을 가셨던 분들이 있었다. 나는 이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한 흥미로웠고, 이 여성들을 통해 이란과 한국의 관계, 한국 근대사를 다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 관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연예인/예술인들에 관한 위문공연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Heungsoon Im
An Ex-dancer & Ex-patriate
(Interview with Korean Immigrant Dancers in I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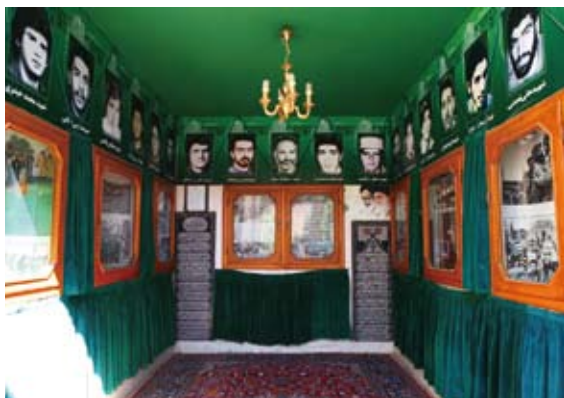
3. I'm currently working with the theme of women of my grandmother's generation; above all, they are very active in raising their voices, in contrast to Korean men, who almost lost their voices, to my minds. To continue to explore my current interest, I planned to unravel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Iran in the form of a love story, but after arriving in Iran and witnessing the 'Seoul-Road' in Teheran, it was almost not accessible as well as very different from what I had expected from Seoul.
4. Along the way, my interpreter (Insoon Kim) told me about women who immigrated in Iran during the 1970s. Two of them also participated at the Vietnam War as part of entertainer's group supported by the American Military. I was intrigued by their story. I became eager to recor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Iran and the Korean modern history from their perspectives and personal stories. My previous work was also drawn out of my interviews with the Vietnam War veteran so I was already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celebrities in their visits to military camps during the War.

5. 테헤란에 무용수 출신이 6명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3명을 어제 만났다. 그동안 인터뷰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자신들의 과거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인터뷰 당사자와의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쓰지 않고 좀 더 은유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
9. 최근 작업 중 미군정기 시절 한국의 최남단 섬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제주4·3'에 관한 작업이 있다. 이 작업은 복잡한 한국 근대사 속에서 회생되고, 침묵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이다. 나는 이번 작업이 '제주4·3' 작업과 같이 한국 근대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의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5. I was informed that there were about six former dancers in Teheran and I met three of them yesterday. As I have been interviewing several people so far, I became aware that it is not easy to talk about your own past. Interview is not a simple task because the interviewer and the interviewee do not instantly make connections with each other. Thus, with such troubles I am thinking of using metaphorical device, not directly using their voices.
9. The massacre of (incident) 'Jeju 4·3' is my recent project; 'Jeju 4·3' is a tragic event that occurred on the southernmost island of Korea during the U.S. Military Occupation period between 1945 and 1950s. This was mainly about the people who were sacrificed and silenced in the turmoil of modern Korean history. I surely consider my current project to be in coherence with the 'Jeju 4.3' project, although it does not make direct references to the Korean history.

11. 또 하나는... 페르세폴리스와 같은 유적을 보면서 인간이 만든 문명의 놀라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나는 페르세폴리스를 둘러싸고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시의 흥망성쇠를 지켜봐왔을 바위, 나무, 풀들을 생각해 봤다. 한국 제주도의 풍경에서 느꼈던 자연의 경외감, 숭고함을 이란의 자연을 보면서도 느껴졌다.
12. 나는 이러한 자연의 숭고함을 이란에서 살아온 한국여성과 어떻게 접목시킬지, 나아가 이분들의 삶을 통해 한국과 이란의 관계 넓게는 중동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싶어졌다. 이번 작업이 한국 근대 형성 과정 중 일본,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중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한국에 돌아가서 이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

11. Another one.... I was astonished with the ancient civilization of the Persepolis, but then I thought of the rocks, trees, and grasses that witnessed the rise and fall of this empire for nearly two thousand years. I felt the awe and respect in the midst of Iran's nature, the same one I experienced from the scenery of Jeju Island in Korea.
12. I became curious of how I will be able to integrate this sublime nature with the Korean immigrants in Iran, and furthermore through these women's lives look into the relations between Iran and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a broader sense. This work will be one of the new stories about people living in Japan, China, Philippines, and etc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modernization. I was very eager to study more about Iran when I returned to Korea. Thank you.



워크숍: 이런 예술가(레미)

Workshop at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임흥순
『테헤란 조감도』, 사진, 2012

Heungsoon Im
『A Panoramic View of Tehran』,
Photography, 2012



Mikyung Song
Iranian Sounds, Colors, and its Bazaars



1. 시작
새로움에 대한 탐구,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그게 나의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다. 이란이라는 나라에 처음 내딛는 발걸음에 생겨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움은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부분에서 보여 지는 것도 분명히 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사운드작업
첫 번째, 사운드 작업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이란의 수피계열 음악이 한국 전통음악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민속악 적으로 보았을 때, 무속적인 의미와 이야기들과 음악적인 내용들이 나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관심을 통해 이란의 전통음악인 수피계열의 음악과 새롭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음악이라는 하나의 도구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역할로서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1. Beginning
Search for novelty! Curiosity for novelty! These are the starting points of my project. It all triggered from a curiosity of what would occur when I first set foot unto the country of Iran. This new thing could be the cultural differences, but something seen from the very trivial and personal level could also be the point of discussion.
2. Sound work
First, I found Korean traditional music very similar to Iran's Sufi music as I was submerged in the sound work project. Especially on the folk music genre, the Shamanistic symbols and musical tales aroused great interest in me. With the help of the people's interest, I got to have a chance to work with traditional Iranian music and Sufi music. It was the time that reminds us that music is the only thing needed to connect people to other people.

3. 색의 재해석
이란에 와서 색에 대해 관찰한 부분으로 보자면, 다양한 색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대부분의 모든 색들이 흙의 색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매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는 현재 모든 도시들이 다양한 색들로 가득하다는 점을 비교하자면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무의식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란에서도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는 곳은 결국 시장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야채들과 향신료, 과일 등이나 벽에 그려진 낙서, 도시에 걸려 진 깃발 등이 그러하다. 결국은 색에 대한 의미는 문화적인 차이에서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공간들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다.

3. Reinterpretation of Color
It was very hard to observe varieties of colors in Iran since most of the tones were full of soil tints. For this reason, I personally thought the overall color tone of Teheran seem to be matt, making me almost suffocated—especially compared to most of the cities in Korea, which are full of dazzling colors. This is due to my unconscious perception and prejudice that has been formed in Korea. But, after all, markets are the places where various shades are seen from the vegetables, spices, fruits, graffiti on the wall, and hung flags. Certainly, the symbols of colors should be determined by different cultures, but it was very captivating to find them closest to people's living spaces.

4. Work Progress Direction
I have already explained about traditional Korean music. For the future of my creative progress, I will use my musical performance that I recorded in Iran (currently in mixing process) back in Korea. A re-interpretation process will take place with a new layer of instrumental sounds from the previous recordings. It can be thought as an extension of the last year's musical performance; the new sound composed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s part of the

4. 작업 방향
사운드 작업 관련해서는 위에서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진행 방향으로는 이란에서 레코딩한 음악은 현재 믹싱과정을 걸쳐서 한국어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레코딩된 음악으로 다시 새로운 연주가 입혀서 사운드의 재해석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작년에 레코딩된 음악에 이번 노마딕 콘서트에서 새롭게 한국전통음악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부분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의 재해석 과정으로 촬영된 이미지와 영상들은 추후 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 및 이란에서 구입한 오방색의 천들로 한국의 전통매듭의 형태로서 서로의 문화적인 이야기들이 얹히고 섞이는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로서 이루어지는 교집합의 의미로 더 진행이 될 것이다.

- 2012 Nomadic Residency will be added.
The images and films from the color reinterpretation progress will be developed into various projects when I return to Korea. Moreover, the textiles bought from Iran will be braided in traditional Korean knot to symbolize the exchange and entanglement of two different cultures and an intersection between them.



한국의 색 / Color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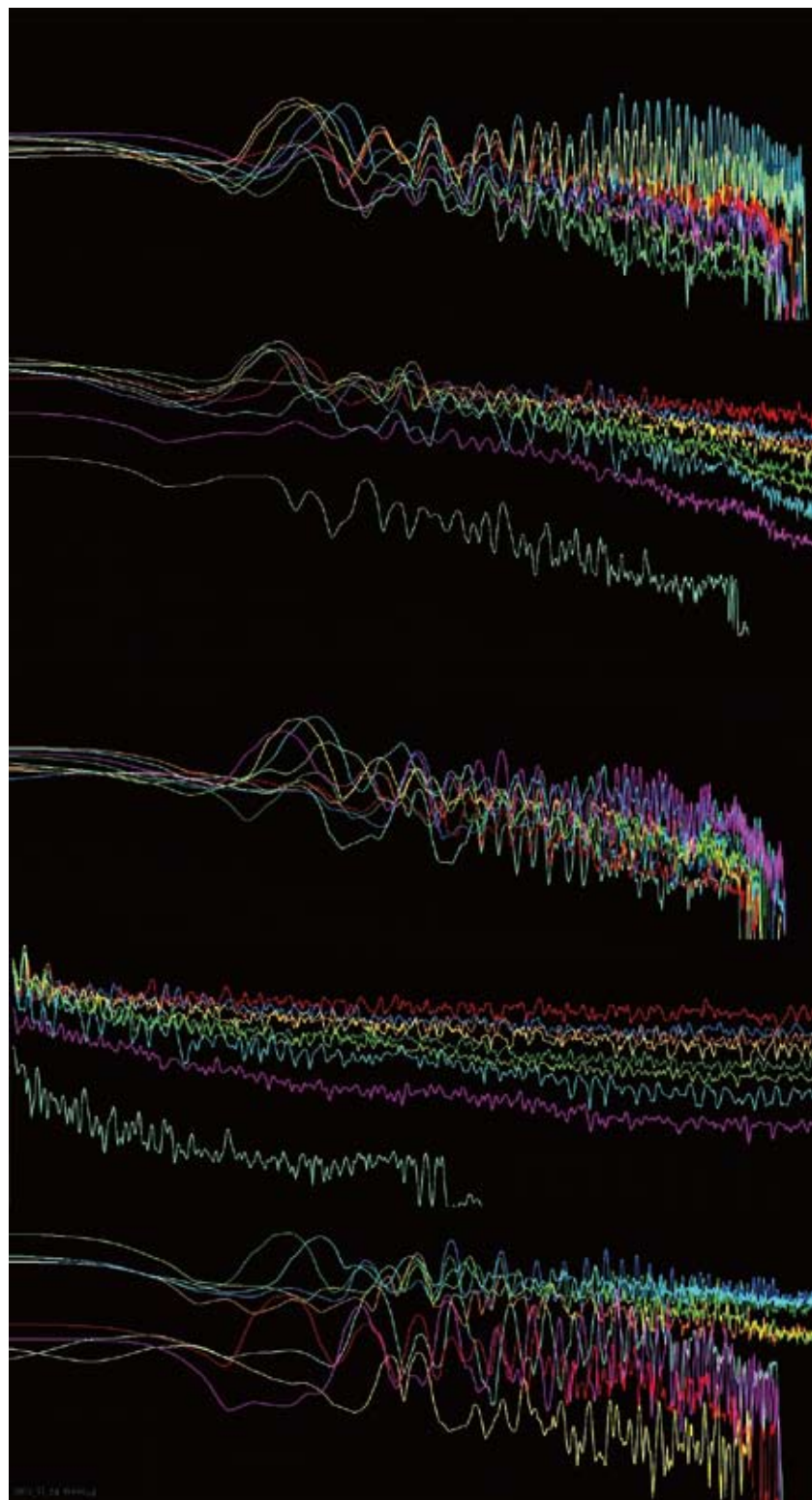


이란의 색 / Colors: I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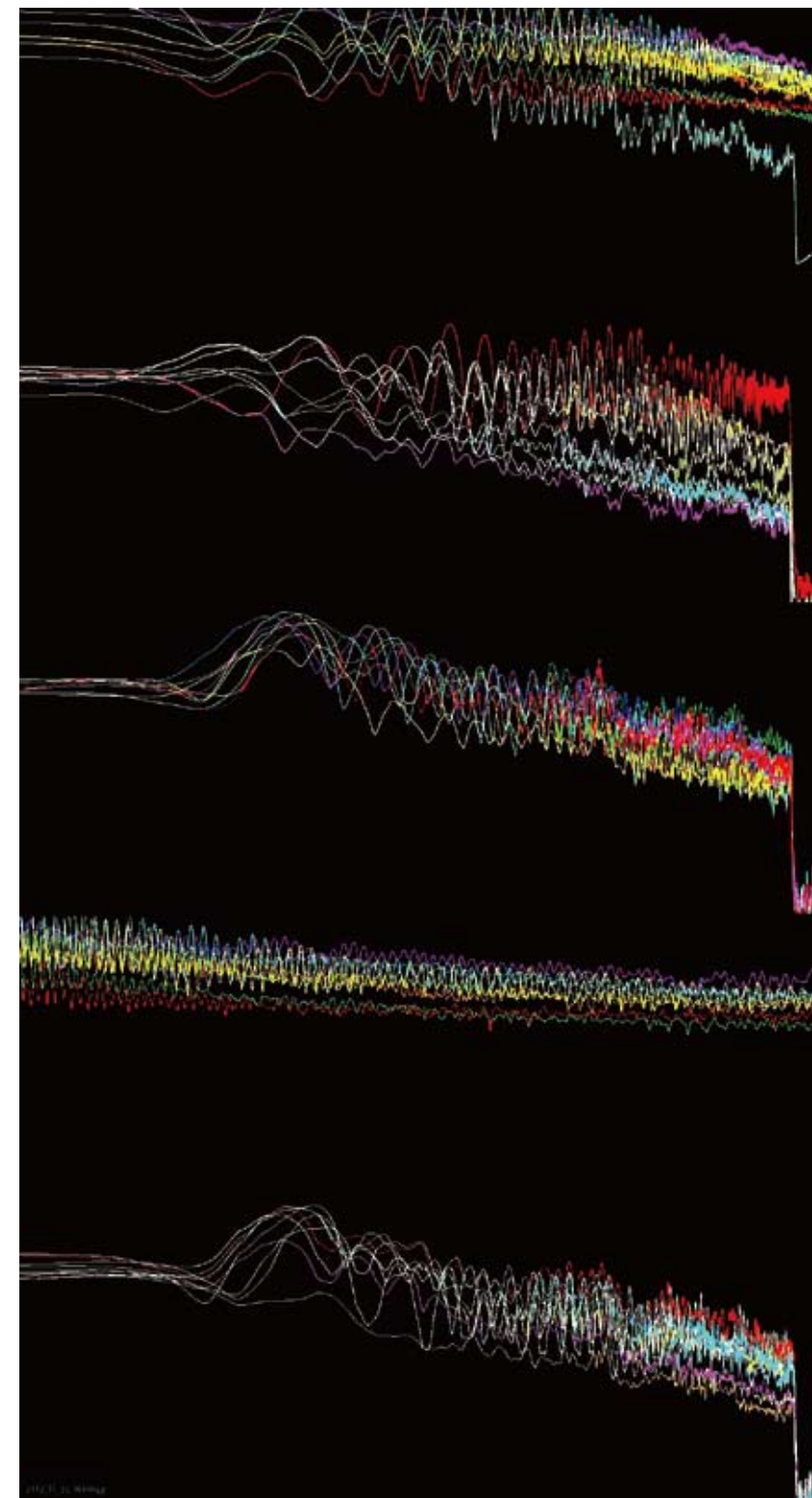


음악 박물관 / Music Museum of Iran





송미경, '왜곡된 풍류', 사운드 스케이프, 2012 / Mikyung Song, 'Distorted Music', Soundscape, 2012



「왜곡의 소통」, 사운드 스케이프, 2012 / 'Distorted Communication', Soundscape, 2012



Jaeyoung Park
The Bokaisen's Travelogue in Iran



보카이센을 찍는 관광객 / A tourist taking a picture of Bokaisen

진 피셔(Jean Fisher)는 “협잡꾼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현대미술의 예술적인 반란으로서 가능한 모델”이라고 표현한다. 나의 작업은 인간이 가진 ‘맹목적 믿음’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황우석 사태나, 신정아 사건을 토대로 집단적 맹신이 발생하는 순간을 목격했고, 이후 일련의 사기 사건들을 관찰하면서 믿음이 가지는 인공적 속성에 대해 분석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위나, 인증서와 같은 사회적인 권위, 해석이 불가능한 과학적 이미지,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 등의 조건을 허위로 조합하여 마치 종교적 신앙과도 같은 믿음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작업은 주로 공간설치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자, 가설의 검증과정이었다.

〈보카이센 스터디스(Bokaisen Studies)〉에서는 연구실이나, 박물관과 같은 일상적 공간을 구현하고, 믿음직한 박사 이미지와 복잡한 수치와 함께 작동하는 가짜 기계들 사이에 허구의 서사 구조를 끼워 넣어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나는 작업을 제작하는 내내 나 스스로 협잡꾼이 되고자 노력했다. 협잡꾼들은 속임수와 위트로서

Jean Fisher once said “Charlatan’s various different looks are the possible model of artistic rebellion in contemporary art.” I began my project as the result of my doubt about the ‘reckless faith’ of the human-being. I have witnessed the outbreak of supportive groups during the Korean Genetic scientist Woosuk Hwang’s situation and Jeaonga Shin incident; after these incidences, I decided to analyze the artificial attributes of faith by observing series of fraud cases in Korea. Through this mechanism, I establish my own hypothesis based upon a number of variables related to socially accepted authority: degree or certificate, indecipherable scientific image. Some familiar news covers can be also manipulated to the extent that they can arouse a faith and become accorded with religious power. My work of installation usually includes a number of storytelling devices and a verification process.

In “Bokaisen Studies,” I have observed a process where trustworthy image can be constituted by prosaic spaces like laboratories and museums when exhibited together with doctor image, complex numerical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뛰어넘고 현실과 비현실, 가상과 실재의 경계를 교묘하게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 현실에서 발견한 사건을 각색하고 변형시켜 허구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출발한 본 작업 과정은 점차 예술적 창작활동으로 시작된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로 변모해갔다.

작품 속에서 〈보카이센〉은 과학적 연구대상인 동시에, 전설과도 같은 설화 속 동물의 특징을 상징하고 있다. 작품 〈보카이센 해외여행 프로젝트〉는 이러한 설화 속 동물이 생겨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설화 속 동물은 외계 생명체와 같이 생경한 동물을 발견한 ‘최초 발견자’가 타인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시각적 경험을 언어구조로 변환 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과장이나 기억의 혼란이 전달되고 또한 그 이야기를 수용하는 타인의 오해로부터 발생하거나, 성장한다. 본 작업은 다른 문화권에 생경한 〈보카이센〉을 가져가 놓아두고 최초 발견자들을 생성하여, 그 지역에서 새로운 설화가 양산되는 단초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figures, and fake machines thrust in with fictional struc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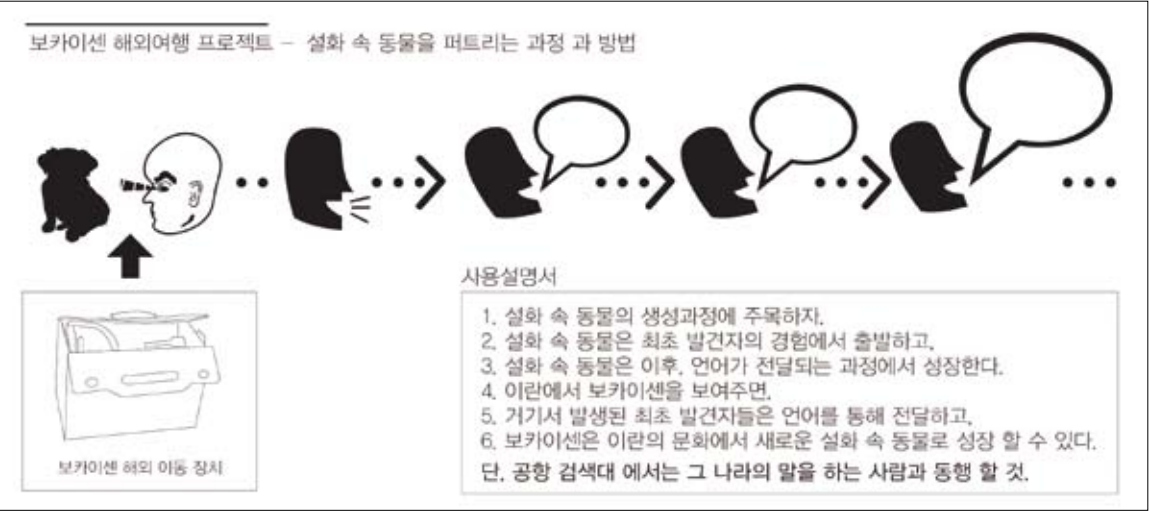
Throughout this project, I tried to become a con-artist myself. Con-artists are capable of surpassing their area, slyly perturbing the border of reality and fantasy, or actuality and imagination.

This series initially emerged and shaped by my artistic and creative activities of transforming and dramatizing an existing case into a delusive one; eventually it prompted me to fabricate another reality.

〈Bokaisen〉 represents both an object of research as well as the traits of a mythical animal. 〈Bokaisen, An International Travel Project〉 follow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is mythical animal arises. The animal emerges and grows as the first “discoverer: explains about this alien creature to others-the process in which his or her visual experience become transformed into verbal descriptions; this involves with intervened exaggeration and confused memories. This project aims to bring Bokaisen to an exotic culture to create its first “discoverer” as well as to ignite any clue that could form a foundation for the birth of a new myth in that region.



보카이센, 공항검색대 / Bokaisen, Airport Checkpoint



박재영, 〈보카이센 해외여행 프로젝트 매뉴얼〉, 도면, 2012
Jaeyoung Park, 〈The Manual for Bokaisen International Travel Project〉, Diagram, 2012



〈보카이센 해외이동장치〉, 혼합매체, 2012 / 〈Bokaisen Carrier〉, Mixed-media, 2012



〈보카이센 해외이동장치〉(세부), 혼합매체, 2012 / 〈Bokaisen Carrier〉(Details), Mixed-media, 2012



고대 건전지와 보카이센 / Bokaisen at a Museum of Science, Tehran



보카이센과 매뉴얼 / Bokaisen and Manual



보카이센과 페허, 야즈드 / Bokaisen, At a Vacant House, Yazd



보카이센과 불의 성전 / Bokaisen, The Temple of Fire, Yazd



보카이센과 페허, 야즈드 / Bokaisen, At a Vacant House, Yazd



보카이센과 페허, 야즈드 / Bokaisen, At a Vacant House, Yazd



1. 나는 고국과 외국의 기억 사이에서 살고 있다. 어린 시절에는 많은 시간을 번역된 외화나 소설을 보는데 썼고, 스무 살이 넘어서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살며 외국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썼다. 나는 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대에 매력을 느낀다. 그 시대로 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영향을 받고 주인공의 라이프 스타일에 빠져들었다. 짧은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공간은 있지만 특징은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나의 이야기는 현실감이 없거나 클라이맥스가 없는데 이것은 아마도 타인의 사적인 이미지를 내 것으로 ‘ 옮겨’ 놓는 나의 작업방식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 나의 작업에서 마치 모국어 영화를 도리어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더빙해 놓은 듯한 마찰감을 느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을 더해가는 대신, 먼저 디테일을



1. My life have been divided between my experiences and memories in my country as well as in foreign countries. I spent my childhood watching the foreign movies of the 1980's and 1990's as well as reading translated foreign literatures. In my twenties, I actually traveled around the world for work and spent my time on learning foreign languages. I usually become fascinated by the era that has no actual relationship with my current life. I can be easily influenced by past as I wish I could go back to those eras. The life styles of progenitors immensely attract me. I'm making a short video clip and it starts with a space without feature. My story is devoid of a sense of reality and climax, perhaps due to my working method of 'taking' stranger's personal image into mine.

Looking at my work, someone once said that he or she feels the friction, as if a native movie was rather dubbed into an unknown foreign language. This might be attributable to my writing style;

모든 뒤 스토리를 맞춰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어느 곳에도 의지할 주인공이나 과잉된 감정을 만들지 않는다. 나의 작업은 현실의 어떤 불편함, 불완전함,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혹은 이미 끝난 이야기에 관한 것이다.

2. 이란은 기대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국적이었고, 신이 났고, 가끔은 불편했다. 아무리 걸어도 근처에 있는 구역과 거리들을 잘 알게 되어도, 이 도시는 언제나 나에게 길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안겨주었다. 시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까지도. 그렇게 정처 없이 배회하다 보면 모든 장소들이 똑같아져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 내게 그런 곳을 발견해 내는 재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I usually gather the details and make my story afterwards to use these details—rather than finding the main narrative first and using details afterwards. I never make any dependable protagonist or reliable excessive emotions in my film. My work constituted of the stories about certain discomfort, imperfectness, and an already finished or an endless anecdote.

2. Iran was a very exotic, exciting, and occasionally uncomfortable place—combined—as I anticipated. I always felt lost in the city no matter how long I walked around the vicinity and learned the streets; not only in the downtown area, but also in my heart. As I aimlessly stroll around, all the places seem so identical that it became less matter where I was. A PLACE NOWHERE TO BE FOUND. I realized I was so talented to discover such places.

3. Old Carpet— When master artisans complete one carpet, they lay it down in the storefront, and

3. 오래된 카펫 – 장인들은 카펫 한 장을 완성하면 가게 앞길에 깔아놓고 행인들이 밟고 지나가게 한다. 진정한 카펫은 밟을수록 선명한 색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페르시아 카펫은 세상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워진다. 이렇듯 물건들은 언제나 우리가 그것들을 접하기 이전까지 이동해온 시간과 공간 모두를 암시해준다. 뿐만 아니라 계속 부유하고 유랑하는 물건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동 경로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과 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낸다. 과거로부터 날아온 물건들은 심지어 그것을 만지고 소비하였던 사람들과 이미 소비된 나머지 물건들이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상기시켜준다.

4. 여행 중 우연히 만난 노인에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 없음에서 오는 활기를 보았다. 스토리를 만들려고

let people walk over; a real carpet's vivid color will appear only when it is constantly stepped over by the people. Persian carpets last through the storms of life and hardships and even after those years, they become all the more beautiful. The life of Iranian is interlaced in this. Like this, objects always imply their movement of time and space before we encounter and even have them. Besides, the drifting and wandering objects beguile new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and perspective on routes that we have not seen and experienced.

The objects from the past remind us of a fact that people who touched and consumed those objects are no longer with us.

4. From an old man I encounter on the street, I sensed vitality, which originated from not having any disturbances, worry and stress over something he owned. I'm trying to make an allegory with the heart of a grandmother, who only lived in Abiyone her entire life, except for two trips to Teheran. I

한다. 테헤란에 두 번 가본 것을 제외하면 일생을 아비오네에서 살았던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나는 사는 곳과 직업을 바꿔가며 되도록 더 멀리 떠나려고 필사적으로 고군분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녀의 늙은 손이 나를 서글프게 만들었다. 도대체 왜 나는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만 했었을까.

5 이란에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과거를 본다. 우리의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사고방식을 표현하기 위한 작은 시공간을 창조하는 것 아닐까. 문득 나의 경험이 현재와 대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대도시는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외로움을 느끼기 쉽다. 도시 사람들은 항상 들끓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개인 공간 확보를 위해 분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나도 자기방어적인 면이 있다. 어쩌면 불편해하기 보다는 똑같은 것들을 매일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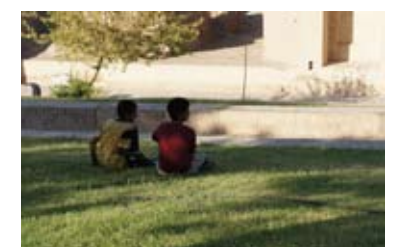
once struggled hard to run away as far as I can, changing my occupations and places all the time. Her wrinkled hands made me desolate. Why did I have to travel so far into the distance?

5. I find our bygone era within Iran. Maybe our work itself is creating a small space-time dimension to exhibit our mindset. I suddenly wondered if my previous experience is a kind of The anonymity of the city is so strong that we easily feel lonely wherever. People of the city are always infested that people have to vigorously fight to secure their private spaces. That's why they and also, I have self-defensive side. It could be so that we might need abilities to excavate underlying depth about things we thought we already knew and new perspectives on pedestrian objects- rather than merely feeling uneasy with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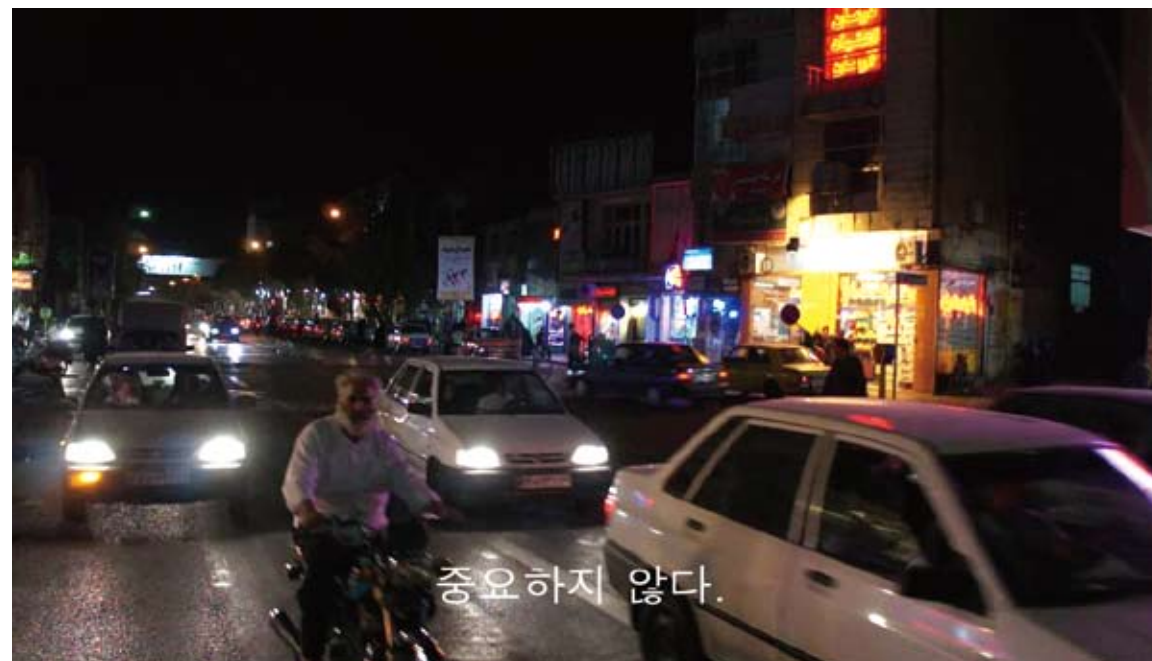
숨겨진 새로운 깊이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했었는지도 모르겠다.

6.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사물보다는 생각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또 재미있는 사람들. 작가들. 삶의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주며 안일함에 머물지 말라고 자극한다. 그들의 작업도 그러하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곳 이란을 잘 안다는 선부분 익숙함이 들었다. 대신 아주 단순한 것들을 보았어야 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다양한 감각과 어떻게 그것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되는 오류와 발견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다. 수많은 실패작을 만들어가면서. 대신 자전적으로. 결국, 작가는 거기에 존재했던 것이므로.

6. When you have conversation with people, you realize that you get inspirations from thoughts more than objects. People are full of Energies, high concentration and entertainment: Then, who is the artist? A person with definite value of life gives positive viruses to other people and challenges them not to languish on complacency. Their works are the same. At some point, I had a rash presumption that I knew Iran so well. I should have rather seen the very simple things. The greatest necessities are the diverse senses on things one observe, the strategies to find them and the firm will to tolerate possible errors and discoveries. Making through number of failures. Autobiographically instead. After all, artist existed there.







Who is he, where does he come from, and what has he done
 is not important.



The world is changing too fast.
 He could not concentrate on one thing for long.



살림! 디다네 쇼머 케일리 코슈할람!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노마딕 프로젝트에서 단순히 관광객으로서 이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방편으로 보다시피 로컬 의상을 입게 되었고
약간의 페르시아어를 배웠습니다.
만남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땅과
바자르 그리고 랄리 파크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즐기고,
교환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땅에서는 지금 여기에 가지고 나온 돌, 소금, 오브제를
주웠고, 바자르에서는 40년 된 디자인의 체스 피스,
물 담배 꼭지, 건축용 세라믹을 구입했으며, 랄리
파크에서는 노인 분들과 체스게임을 했습니다.
물건들은 대부분 체스 피스를 닮은 것들입니다.
저의 수집과 쇼핑 그리고 체스게임은 문화의
만남이고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언어적

Sangbin Lim
Chess in Friendship



나의 체스 컬렉션 / My Chess Set and Piece Collection

Sallum! Didane Shommuh Kaley Koshuhalam!
(How are you? It is honored to meet you all!)
In the Nomadic project, I valued more of my
personal encounters with local people than simply
going around Iran as a tourist. I learned a bit of
Persian, as you can see, and I began wearing local
clothes as an expedient to get closer to your people.
For this project meeting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 three parts: Land, Bazaar, and Laleh Park(Tehran).
Here, I gathered, traded, and planed to have
meetings. On the land, I picked up rocks, salt, and
objects. At Bazaar I bought 40 years old chess piece,
calean (Persian water pipe) tip, and architectural
ceramic. In Laleh Park I played chess with some
elderly folks. Most of the objects resemble the chess
piece.
I consider collecting, shopping, and doing
chess games as cultural rendezvous and exchanges.
Game is an effective way to overcome the language
barrier; therefore when I am in games, the national
and cultural division between my opponent and me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게임이 이루어지는 시간만큼은 이란인과 한국인이란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플레이어만이 있을 뿐입니다.
잠시 제가 만난 이란인들과 체스게임을 하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 야즈드 호텔에서
만난 수학교수님 모하메드씨, 쉬라즈행 버스에서 만난
치과 의대생 모하메드씨, 랄리 파크에서 만난 할아버지
모하메드씨입니다. 이상하게도 모하메드씨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한 언어는 페르시아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닙니다. 여기 이
수첩에 적힌 것처럼 기보라는 이름의 게임언어입니다.
이것은 공용어로 작용하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함께
고민한 게임의 내용은 언제든지 기억되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작은 소통입니다만, 게임
속에서 만큼은 다름과 차이를 느끼지 않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체스의 기원과 오래된 룰에 대한

became vanished; only players are left.
Let me briefly show the chess game I played
with Iranians; the Statistics professor Mohammed at
Yazd Hotel, Mohammed, a Pre-med dental student
whom I met in the bus to Shiraz, and Grandfather
Mohammed at Laleh Park. Oddly, I only met people
named Mohammed. With them, I neither spoke in
Persian, Korean, nor English, but the game language
of as written in this notebook. These drawing
works are the record of the official language and the
contents of the game that the players solved together;
these records are preserved to be commemorated
and recalled long after the games are over. Although
chess gaming allows the limited window of
communication, while in these harmonious games,
I do not experience any discordance.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Mr. Hadi
Karimi, the Secretary General of Iranian Chess
Federation, for his kind explanation of the origin
and ancient rules of chess in Ira, as well as the
complimentary chess set and books.
Merci! Merci!

친절한 설명 그리고 체스 세트, 책 등을 선물해 준
체스연맹 하디 카리미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멜시~ 멜시~.(Merci! Mer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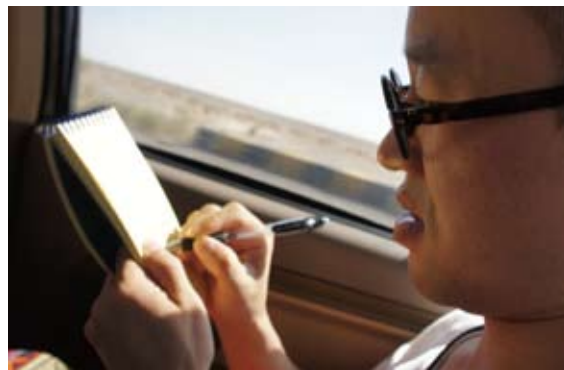


워크숍: 이란 예술아카데미



야즈드 호텔에서 만난 모하메드 / Professor Mohammed at Yazd Hotel

Workshop at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워크숍: 이란 예술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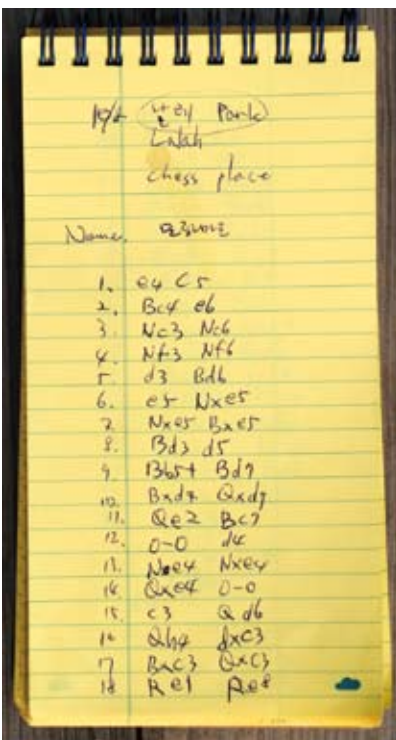
Workshop at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임상빈, 〈비행기 좌석배치〉, 드로잉, 2012 / Sangbin Lim, 〈The Arrangement of the Artists' Seats in the Plane〉, Drawing, 2012



〈이스파한 호텔과 관광용품〉, 드로잉, 2012
〈Isfahan Hotel and Souvenirs〉, Drawing, 2012



〈체스 기보〉, 드로잉, 2012 / 〈Chess Guibo〉, Drawing, 2012



〈페르세폴리스에서〉, 드로잉, 2012 / 〈At Persepolis〉, Drawing, 2012



〈골동품 체스피스〉, 2012 / 〈Antique Chess Pieces〉, 2012



〈선물받은 체스피스〉, 2012 / 〈Chess Pieces from Iranian Friends〉, 2012



〈수집된 오브제〉, 2012 / 〈Randomly Collected Chess Pieces〉, 2012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이란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술과 그 예술을 표현하는 것이 그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되나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다른 예술을 배우고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전통예술과 문학은 그 심오함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매우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미술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지만 계속적인 교류로 이해의 관계가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아카데미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고동연박사 및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게 매우 감사 드리며 계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Closing Remark
Mr. Naser,
Director of Saba Cultural and Artistic Institute

Hello. I am very pleased to co-organize this program with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Practicing art varies in every country and culture; hence we ha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learn and experience such differences through this program.
Iran's traditional art and literature are very distinctive in their profundity. I also think the same for Korean traditional art and I have a very special sentiment towards it. I also know that the broad gap along th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art will narrow down through the constant exchange of conversations. I highly appreciate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Arts Council Korea and Dr. Dongyeon Koh as well as young Korean artists. I hope this exchange will continue unceasingly.

일단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며 이란작가들의 대표로써 아카데미 이란과 사바갤러리, 한국예술위원회 및 작가 6인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뽑힌 6명의 이란작가 와 한국 작가들 모두 추구하는 예술의 분야와 표현은 다르나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을 알고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아직 현대미술과 다양한 예술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젊은 이란작가들은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작가들이 이란의 일반 사람들과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관심을 지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 드리며 이 프로그램이 잘 끝날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Iran Artist Representative Mr. Sabouri

First of all I am very pleased to be selected in this program and I want to thank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Saba Cultural and Artistic Institute, Art Council Korea, and the six artists on behalf of Iranian artists.
Six of the Iranian and Korean artists selected, respectively, for this program to pursue different genres of art and expression, but this program wa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nd acknowledge the methods of having new perspectives in art.
Iran does not have solid knowledge of contemporary art and the various genres of art yet, but young artists are continuously striving to learn. It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to see Korean artists concerned with the ordinary lives and people of Iran. Again, I'm very grateful and satisfied to see the positive completion of this program. Thank you.

C. 물물교환
나달리안 박사
피루즈 아리만드(음악)
공노쉬 하미딩(음악)
하이드 카리미(체스협회장)
캄비즈 사부리(작가)
라민 에테르마디 보조그(작가)
마흐사 카리미자데(작가)
구로슈 골나리(작가)

D. 워크숍 후 행사
워크숍 후에 이란작가들은 한국 작가들이 마련한 음식을 먹으면서 물물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작가들은 전통시장이나 여행중 구입한 물건들을, 그리고 이란 작가들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업과 편지들을 한국 작가들과 서로 교환하였다.

C. Gift-Exchange
Iran Artists and Mentors
Ahmad NadeAlian (Mentor)
Pirouz Arjmand (Music)
Hadi Karimi, Secretary of Chess federation,
Kambiz sabouri (Artist)
Ramin Etemadi Bozorg (Artist)
Golnoush Hamidi (Musician)
Mahsa Karimizadeh (Artist)
Kourosh Golnari (Artist)

D. After the Workshop
Iranian artists tried a traditional Korean food called Bibim-bop provided by Korean artists while exchanging gifts to each other. Korean artists gave presents that they had brought from Korea or purchased while they traveled different parts of Iran; Irannian artists, in turn, gave gifts and letters to Korean artists that they had provided and made especially for Korean artists.



워크숍: 이란 예술아카데미



Workshop at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후원기관들

노마딕 레지던시는 매년 작가들이 여행하면서 예술적 영감을 얻고 작업을 제작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노마딕 레지던시 기간 중 작가들은 자연스럽게 여행하는 국가의 작가들이나 미술기관들을 방문하였다. 이에 노마딕 레지던시를 직접 후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현지에서의 활동을 후원한 이란 예술아카데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위원회의 주된 목표는 국내외의 기관과 예술가들을 기금 수여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여 한국인들의 삶 속에 예술이 더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1973년 한국문화와 예술기금으로서 설립되었고 후에 재편되어 한국문화와 예술진흥법령 재개정으로 2005년 한국예술위원회가 되었다. 그때부터 ARKO는 한국정부가 중시하는 근본적인 국가문화예술정책의 예술과 문화정책을 형성하고 이행하는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왔다. ARKO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11번째 임명되어 운영되었다.

감사 김찬형

국제교류협력부 부장 장용석

차장 류재수

대리 임기현



Arts Council Korea

<http://www.arko.or.kr/>

It is a state funded, non profit organization. The main aim of the Council is to make the arts more central to the lives of the Korean citizens by supporting arts organizations and artists in and abroad through grant-giving services and programs. Established as the Korea Culture and Arts Foundation in 1973, it was later restructured as Arts Council Korea in 2005 following the reenactment of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Since then, ARKO has taken the leadership role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arts and cultural policies based on the National Culture and Arts Policy set by the Korean government. ARKO Council is governed by an eleven member council appoi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hanhyung Kim, Executive Auditor

Yongsuk Jang, International Div., General Manager

Jaesoo Ryu, Deputy Manager

Kihyun Yim, Associate Manager

이란예술아카데미 및 사바 문화예술기관

<http://www.honar.ac.ir/>

이란예술아카데미는 1998년 3월 16일 문화혁신 비준안 No. 439에 따라 문화혁신상의회기구와 24조항을 토대로 설립되었다. 1조항에 따르면 예술아카데미의 지위는 이슬람 문화권의 예술과 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필수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제안하며, 침공하는 문화들의 위협에 직면하는 이슬람 문화를 홍보하고 최선의 발견과 혁신에 접근하게끔 한다. 이란예술아카데미는 법적 독립기구이며,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예산이 편제되어 있다.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http://www.honar.ac.ir/>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 enactment ratified at the session No. 439, dated March 16, 1998 of the High council of the cultural Revolution on the basis of the Article 24 of the Low of objectives and Function of the High Council of the Cultural Revolu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1 of the Statutes of the Academy of the Arts, The Academ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safe guard the Islamic, national heritage and art, make necessary policies, propose strategies, and providing access to the latest findings and innovations as well as promote the Islamic culture to confront the threats of the invading cultur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is legally an independent institution, affiliated to the President's office and its annual budget is stipulated within the budget of the President's Office.

국제부 국장 피루자데

연락 책임자 및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모하메드

사라나바드

코디네이터 사미라 사데기

홍보 사야피

코디네이터 모데 아리피

사바 문화예술기관 관장 마수드 나설



A. Firouzzadeh, Director of International Department
Muhammad Sahranavard, Liaison Officer and Coordinator

Samira Sadeghi, Coordinator

M. Sayyafi, Public Relations

Mojdeh Arifi, Coordinator

Masoud Naser, Director of Saba Cultural and Art institute

Thanks

The Nomadic Residency Program annually supports and funds a team of curator and artists to travel abroad in order to get artistic inspiration and to realize those outcomes in their future projects. During the Residency, artist visit and sometimes collaborate with artists and art institutions of the country where they are visiting. Our curator-artists team would like to express the deepest gratitude to Arts Council Korea, which funded the entire process of our residency, and the Iranian Academy of the Arts, which supervised and provided an array of resources while our team is staying in Iran.

예술가의 집

현대예술에 대한 정부나 기관의 후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젊은 작가들이나 미술대학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학생과 교수들이 주로 전시하는 공간이다. 마침 노마딕 프로젝트의 이란 측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전시하고 있다.

사즈마납 비영리공간 및 레지던시

<http://www.sazmanab.org>

사즈마납은 2009년 이란에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 예술공간이다. 사즈마납은 전시와 이벤트를 통한 미디어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예술 작업, 작가들과 큐레이터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교육 계획, 토론(대화, 논의)과 출판물을 지원한다. 현대 미술의 관객과 전문가를 다양화함과 더불어, 지역과 국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즈마납은 이란 현대 미술의

The Artist's House

In contrast to government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contemporary art, the artist's house is one of the rare spaces where young artists, professors and students who teach studio programmes in art schools. Just at that moment, there was an exhibition which many Iranian artists of the nomadic project took part in.

Sazmanab

Artist' Residency and non-profit organization

<http://www.sazmanab.org>

Sazmanab is an independent non-profit art space in Iran established in 2009. Sazmanab supports artistic work in a wide range of media through exhibitions

지식과 감상과 관습(관례)을 지원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란 미술과 작가들을 사즈마납의 프로그램과 원조(지원) 활동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한다.

이란 큐레이터와의 인터뷰 Sohrab Kashani, Director of Sazmanab

사즈마납(Sazmanab)이라는 이란에서 정말 몇 안되는 레지던시 겸 비영리 공간을 방문하였다. 출국하기 전에 이란의 미술계와 연락을 취하고자 알아본 이란 미술잡지 <내일의 예술(Arts Tomorrow)>의 편집장이 추천한 곳이었다. 사즈마납은 일반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전형적으로 미술계 비영리 공간 큐레이터로 보이는 카샤니가 나와서 우리를 반겨주었다.

마침 갔을 때는 터키에서 온 작가 2명과 큐레이터

1명이 전시공간에서 숙박을 해결하면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간 자체는 깔끔해 보였지만 큐레이터가 자신의 아파트를 전시 공간이나 레지던시의 숙박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고 안타깝게도 여겨졌다. 원래 이란에서는 따로 예술을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하는 작가나 큐레이터들을 후원하는 외국 기관의 기금을 가지고 레지던시가 진행된다고 하였다. 한국 현대미술계와는 광주 비엔날레가 두바이에서 설명회를 할 때 참석한 것과 비엔날레에 자신들의 친구나 아는 작가들이 참여한 것들 외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란의 중요 작가인 쉬린 내샤(Shirin Nashat)의 뉴욕 파넬에 참여하거나 기획자 티노 세갈(Tino Seghal)등이 레지던시에서 진행되는 행위예술을 계획하는 등 국제적인 교류는 활발히 하고자 하는 공간이었다.

and events, residencies for artists and curators, educational initiatives, talks and publications. By establishing local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s well as diversifying both the practitioners and audiences of contemporary art, Sazmanab aims to support and expand the knowledge, appreciation and practice of contemporary arts in Iran and to promote Iranian arts and artist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hrough its programming and outreach activities.

An interview with Sohrab Kashani, Director of Sazman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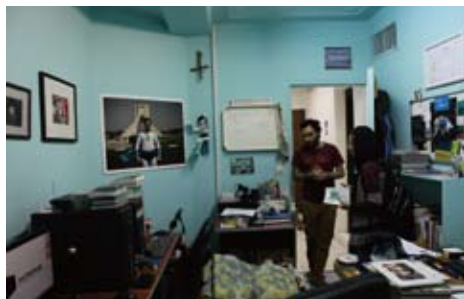
We visited Sazmanab, one of the few residency and non-profit art spaces in Iran. Sazmanab was recommended by an editor of Iranian art magazine <Arts Tomorrow>. Sazmanab is located in residential areas. Its founder and chief curator Mr. Kashani greeted us as we enter the first floor of the apartment, which was also used as both its exhibition space and residency.

When we were there, 2 artists and 1 curator from Turkey were getting their room and board to prepare their exhibition. The space itself was neat and tidy, but it was quite moving as I realize that the curator used his own apartment for his residential team to use as the exhibition and residency. Since there is no private organization that supports non-profit organization, Sazmanab is primarily funded by foreign governmental and cultural institutions. Mr. Kashani replied that Sazmanab did not have any experiences and exchanges with Korean artists and institutions-except he visited the hearings of the Gwangju Biennale at Dubai. Some of his friend artists also participated at the Gwangju Bienniales. He, however, underscores that he would like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Korean artists and institutions. One of the renowned international curator Tino Seghal has instructed the performance to be held at Sazmanab and its affiliate also participated as a panel at Shirin Nashat's conference held in White Cube in New York in 2011.

Galleries and Institutions in Iran



예술가의 집 / The Artist's House



사즈마납 / Sazmanab

라프 갤러리

국제적인 미술과 개념미술을 소개하는 비영리공간

<http://www.facebook.com/GalleryRaf>

2012년 10월 5일, 독립갤러리 라프는 오프닝을 기념한다. 라프는 이란과 중앙아시아의 미술 시장의 계층을 넘어선 예술을 위한 비영리 공간으로서 설립되었다. 라프는 이란 비주얼 아티스트들과 국제적인 작가들을 초대해서 고급 관객 즉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컬렉터뿐 아니라 건축가, 사진가, 갤러리스트들에게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라프는 비디오, 설치, 사진, 회화, 조각의 영역에서 통상적인 전시기획의 관심사의 범위를 넘어선 예술적 실험을 다루고자 한다.



라프 갤러리 / Raf Gallery

Raf Gallery

Non-profit gallery for international artists

<http://www.facebook.com/GalleryRaf>

The independent art gallery, Raf, is celebrating its opening on 5th October 2012. It is founded as a not-for-profit space for art beyond the hierarchies of the art markets in Iran and middle east. Raf has invited international as well Iranian visual artists to present their ideas to an advanced audience of artists, curators, critics, collectors, as well as architects, photographers and gallerists. Raf is about artistic experimentation in the fields of video, installation, photography, painting, sculpture, etc. beyond the confines of curatorial concern.

목센 갤러리

이란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화랑

<http://www.facebook.com/mohsengallery>

이란에서 가장 큰 화랑에 속하며 지하에는 일반 갤러리, 1층에는 카페, 도서관, 그리고 뒤쪽에 행위예술과 공연장이 구비되어 있다. 2층에는 사무실, 그리고 3층에는 현재 레지던시 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축중이다. 목센 갤러리에서는 이란 작가들을 소개하는 도서출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이란 현대미술작가들이 포함되게 된다.



목센 갤러리 / Mohsen Gallery

Mohsen Gallery

One of the biggest galleries in Iran.

<http://www.facebook.com/mohsengallery>

It is one of the biggest galleries in Iran; the basement is used as the exhibition place while there is a cafe and library on the first floor. The backside of the first floor is also used as a theatre for performing art and multi-media artistic events. The second floor is used as an office, and the third floor is being rebuilt for arranging space for two residential artists. Mohsen gallery is publishing books to introduce Iranian artists including most major contemporary Iranian artists.

참여작가들과 기획자

Participating Artists and Curator



임흥순

www.imheungsoon.com
human9000@hanmail.net



임흥순은 전쟁이나 이주와 같이 드라마틱한 인간사의 뒤편에서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다큐멘터리나 아카이브 작업을 제작하여 왔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한국군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보관해온 물건들이나, 사진, 편지들을 수집하여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레지던시에서도 작가는 이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중에서 1970년대 초 이란으로 오신 무용수 할머니와 여성들을 만났다. 이들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역사라는 점에서 작가는 애착을 갖고 작업을 진행시키고자 한다.

임흥순은 2002, 2004, 2010년 광주 비엔날레에, 2012년에 발표된 ‘제주 4·3’을 다룬 〈비념〉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분에 초대되었다. 2011-12년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전시에 참여하였다.

Heungsoon Im has produced documentaries and archives about the “forgotten” stories of those people whose record did not find a proper place in the official history of wars and migrations. Between 2006 and 2010, the artist interviewed Korean veterans in the Vietnam War as well as installed an archival exhibition comprised of these veteran’s personal objects, photographs, and letters that they preserved more than four decades. For the 2012 Nomadic Residency, the artist dealt with Korean ex-patriates currently living in Tehran; these old ladies were dancers in Korea and even in the Vietnam War before coming to Iran during the early 1970s. While their stories belong to the realm of private, yet their life journey touches upon collective memories, reflecting the overarching history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Korea, the process inseparable from the history of Korean migration.

Heungsoon Im has been invited to 2002, 2004, and 2010 Gwangju Biennale and his work about the Jeju 4·3 massacre, ‘Jeju Prayer’ was premiered at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Korean feature film sector. Im also participated in “From Yeoido to Incheon” at Ilmin Art Museum (2011-12).

- CV (b. 1969)
- 교육
- 2001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화와 졸업
- 1998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 주요 개인전
- 2011 비는 마음, 스페이스 99, 서울
- 2003 추억록, 일주아트하우스, 서울
- 2001 답십리 우성연립 지하101호, 대안공간 풀, 서울
- 주요 그룹전
- 2012 계속되는 예술, 불가능한 공동체,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11 TV 코문,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 2011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일민미술관, 서울
- 2010 광주비엔날레-만인보,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광주
- 2009 VIDEO:VIDE&O, 아르코 미술관, 서울
- 최근 작품상영 및 워크숍
- 2012 인디포럼-월레비행, 〈비념〉상영, 인디플러스, 서울
- 2012 금천블루스(금천주민영화워크숍),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12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전쟁 〈비념〉,

- 롯데시네마, 파주
- 2012 서울시네마테크-주목할 3인의 시선, 〈비념〉, 〈임흥순단편선〉, 서울아트시네마, 서울
- 2012 제주여성영화제-올해의 특별섹션: 여성 예술 〈나는 접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
- 2012 시네마디지털영화제 서울, 한국전쟁 〈비념〉, 압구정CGV, 서울
- 2012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개막작 〈송시〉, 마포구청대강당 / 한국영상자료원
- 2012 경매-위기의 물건들, 금천예술공장 창고동, 서울
- 2012 우민극장-만국박람회(보통미술있다), 우민아트센터, 청주
- 2012 전주국제영화제 경쟁부분/한국전쟁(장편) 〈비념〉, 메가박스, 전주
- 수상
- 2012 시네마디지털서울 영화제, 버터플라이 부분 수상(비념+위로공단), 시네마디지털 서울
- 2005 올해의 예술상-독립예술부분 우수상(믹스라이스채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eungsoon Im

www.imheungsoon.com
human9000@hanmail.net

- CV (b. 1969)
- EDUCATION
- 2001 MFA Graduate School of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Korea
- 1998 BFA in Painting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Korea
- SOLO EXHIBITION
- 2011 Prayer, Space99, Seoul
- 2003 Memento, Ilju Art House, Seoul
- 2001 Dapsimni Useong Tenement-basement No.101,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 SELECTED GROUP EXHIBITION
- 2012 Residency Artist Open Studio, Seoul Art Space_Geumcheon, Seoul
- 2011 TV Commune, NJP Art Center, Yongin
- 2010 The 8th Gwangju Biennale-10,000 Lives, Biennale Hall, Gwangju
- 2009 VIDEO: VIDE&O, Arko Art Center, Seoul
- SELECTED FILM FESTIVAL
- 2012 DMZ Korean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Korean Competition ‘Jeju Prayer’, Lotte Cinema, Paju
- 2012 Cinema Digital Seoul, Butterfly(Korean Competiton), ‘Jeju Prayer’, Apgujeong CGV, Seoul

- 2012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 Opening Film ‘Sung Si’, Korean film Archive, Seoul
- 2012 Jeju Women’s Film Festival-This Year’s Special Section: Women’s Art, ‘Flying Prate’, Jeju
- 2012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Korean Film Competition-‘Jeju Prayer’, MEGABOX, Jeonju
- AWARD
- 2012 Cinema Digital Seoul, Butterfly Winner (Korean Competition), ‘Jeju Prayer’, Seoul
- 2005 Korean Art Awards, Independent Art-Superior Prize ‘Mixrice channel’, Arts Council Korea, Seoul

임상빈

bintkfkfkd@daum.net



임상빈은 2010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주민되기(Being Resident)”에서 재개발 대상지역인 안양5동의 한 폐가를 다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10개월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레지던시에서는 “우정의 움직이는 체스” 퍼포먼스로 현지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하여 작가는 낯선 이국을 관광하듯 부유하는 의미의 노마딕 레지던시가 아니라 일시적 만남(공간-사물-사람)과 놀이(게임)를 통해 수집/교환/교류의 노마디즘 개념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임상빈은 2008년 태안기름유출사건에 관한 주관적 보고서를 드로잉으로 제작한 개인전 “Run a play”와 2010년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에서 기획자겸 작가로 참여하였으며, 현재 추계예대, 홍익대, 세종대에 출강하고 있다.

Sangbin Lim

bintkfkfkd@daum.net



For his 2010 Anyang Public Art Project, artist, Sangbin Lim remodeled a deserted house under the redevelopment plan into a multi-purpose space in the redevelopment district of Anyang 5-dong; and lived there for ten months to practice his community program. In Iran, Lim has also developed his project “The Moving Chess of Friendship,” a conceptual work that emphasize his interactions with the Iranians throughout our journey. Through this, Lim wanted to move away from an image of a just tourist who is supposed to float around exotic places; instead, he translated the idea of nomad as an artist who can consistently perform multi-functions of collecting/trading/ exchanging within as well as with space-object-people in his chess games with random encounters with people.

Lim Sangbin held a solo exhibition, “Run a play” in 2008 with his subjective drawings of the oil-spill incident at the Taean Peninsula. The artist also participated as a planner and an artist in the 2010 Anyang Public Art Project. He currently teaches at the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Hongik University, and Sejong University in Korea. Lim also participated in “From Yeoido to Incheon” at Ilmin Art Museum (2011-12).

CV (b.1975)

교육

2004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 예술전문사과정 졸업

2001 세종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08 Run a play-‘태안기름유출사고’에 관한 주관적 보고서,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갤러리, 서울

주요 그룹전

2012 커뮤니티 아트, 금천미술공장, 서울

2011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일민미술관, 서울

2010 APAP2010: 주민-되기, 안양5동, 경기

2009 파일럿 프로젝트: 感+動, 고한, 강원

2009 Towards the Level Zero, Sea and Space Gallery, LA

2009 Art at Home-Wonderful Life, 두산갤러리, 서울

2009 첫사랑, 호기심에 대한책임감 갤러리, 서울

2009 심표, 대안공간 충청각, 서울

2009 여섯 번째 여름, 스톤앤워터 갤러리, 경기

2007 ‘견다’ 동덕갤러리, 서울

CV (b.1975)

EDUCATION

2004 M. F. 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2001 B. F. A, Sejong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

2008 Run a play - A subjective report about ‘Taean Oil Spill’ (Gallery Curiosit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

2012 Community Arts, Geungchon Art Factory, Seoul

2011 Up in the Air: From Yeoido to Incheon, Ilmin Museum of Art, Seoul

2010 APAP2010: Being-Residents, Anyang 5-dong, Gyeonggi, Korea

2009 Pilot Project: Be Moved, Gohan, Gangwon, Korea

2009 Towards the Level Zero, Sea and Space Gallery, LA

2008 Art at Home-Wonderful Life, Doosan Gallery, Seoul

2008 First Love, Gallery Curiosity, Seoul

2008 Pause Character, Alternative Space Chung Jeong Gak, Seoul

2008 The 6thSummer, Space Stone & Water, Gyeonggi, Korea

2007 Walk, Dongduk Gallery, Seoul

2006 Seoulsienne-2006 Street Sketch of New Trend in Seoul, Space Stone & Water, Gyeonggi, Korea

2007 Act Without Words, 175 갤러리, 서울

2006 서울지엔느-2006 셔블의 최근 유행스케치, 스톤앤워터 갤러리, 경기

2006 렌탈-트렁크, 사루비아 갤러리, 서울

수상

2008 문예진흥기금 신진예술가지원부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99 MBC 미술대전 우수상,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기고

2008 박수근, 이중섭 위작사건 참관기 , ARTRADE (6호), pp. 36~38

2000 공장미술제 참여 유감기 , 미술세계 (2001. 2), pp.76~83

주요 기획

2010 APAP2010 ‘주민-되기’커뮤니티 프로젝트, 안양5동, 경기

2008 심표, 대안공간 충청각, 서울

2008 Go!Go!, 호기심에 대한책임감 갤러리, 서울

2006 서울지엔느-2006 셔블의 최근 유행스케치, 스톤앤워터 갤러리, 경기

AWARDS

2008 Korean Cultural and Arts Promotion Fund (KCAP Fund)-Enhancing the creative capacity of artists (Arts Council Korea, Korea)

1999 Second prize at MBC Fine Art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ARTICLE

2008 ‘Inspection into Soo Keun Bak and Jung Sub Lee’s forgery case’ (ARTRADE, 6thedition,p.33-36.

2000 ‘Journal about the participation in Factory Art Festival’ Misul Segae, 2ndedition, p.76~83.

CURATING

2008 Pause Character, Alternative Space Chung Jeong Gak, Seoul

2008 Go! Go!, Gallery Curiosity, Seoul

2006 Seoulsienne - 2006 Street Sketch of New Trend in Seoul, Space Stone & Water, Gyeonggi

2005 Meeting Magritte, Sejong Gallery, Seoul

2004 Plant-Reading, Gallery Greenhouse AA, Gyeonggi, Korea

2000 Secret Revelation, Dae-Yang Hall, Sejong University, Seoul

송미경

iris1018@gmail.com



Mikyung Song

iris1018@gmail.com

Mikyung Song is a multi-media artist playing traditional Piri as well as working with the video and media installations—he was included his group show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in Korea in 2010. During the 2012 Nomadic Residency, the artist played a duet with an Iranian traditional percussion player, while, in bazaars, photographing and collecting object of which colors are equivalent to those of the traditional Korean five colors “Obang Saek.” Her primary method was the Polaroid cameras and tape recorders—not dissimilar to the task often undertaken by cultural anthropologists. According to Song’s observation, big city like Teheran had temperate and planned colors but in contrast, Bazaar had less refined and diverse colors. Through this project, she intends to examine the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Iran through colors.

Mikyung Song is a Ph. D. candidate of the Soongsil University; The artist has also completed the 17th “Immaterial Treasure,” in the field of Udo performative peasant music, and inherited the 1st “Major Immaterial Treasure” in the Royal Ancestor’s ritual music. She has a group show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송미경은 전통적인 피리 연주가이면서도 백남준 미술관에서 미디어 아트 작업을 전시하여 온 다재다능한 작가이다. 이번 레지던시에서 송미경은 이란 타악기 연주자와 협업을 하고 이어서 바자르를 둘러서 한국의 오방색에 대응하는 이란의 민속공예품을 관찰하였다. 일종의 문화적인 인류학자로서 그녀는 폴라로이드를 사용하여 이란 바자르의 색상과 바자르의 다양한 소리를 즉석에서 기록하였다. 작가에 따르면 테헤란과 같은 이란 대도시의 절제되고 계획된 색상과는 달리 바자르에서는 덜 정제되고 다양한 색상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이란의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색상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 작가의 목적이다.

송미경은 현재 송실대학교 미디어 아트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이수자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이기도 하다. 2009년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가진바 있다.

CV (b. 1980)

- 교육
- 2012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미디어아트 박사과정
- 2012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 졸업
- 2008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부 국악과 졸업
- 2004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수석졸업

CV (b. 1980)

- EDUCATION
- 2012 Doctorate program with major in Media Art,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 2012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 in Music Education, Seoul, Korea
- 2008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 in Korean Classical Music, Seoul, Korea
- 2004 Dankook University Bachelor’s degree in Korean Classical Music, Seoul, Korea
- EXPERIENCE
- A member of Hwangjong Piri Research Association
- Performer of Woodo Nongak,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7
- Nongak is farmers’ group entertainment
- Performer of Jongmyo Jaeraeak,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
- Jaeraeak is music played for ceremony at royal shrines
- Art director of Interrmedia Space RM, Nara, a music research Institute

경력

- 황종피리연구회 정회원,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
- 동서신악연구소 The Nara (驪), Intermedia Space RM Art director
- 송실대학교, 중부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강의
- 2012 돌봄프로젝트 기획 및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ARTE
- 2012 지구를 살리는 불가사의한 예술프로젝트 COP 기획 및 선정
- 2011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모니터링, 인천
- 2011 지역문화 전문가양성과정 국내, 국외연수선발 및 연수 (독일)
- 2011 - 201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획 및 선정
- 2010 - 2012 고양호수예술축제 자유참가부분기획 및 선정
- 2009 - 2012 사회문화예술교육 군교육 기획 및 선정
- 주요 전시 및 공연
- 2012 2012 노마딕 레지던스 Performance & Presentation, Iran
- 2012 경기문화재단 문화바우처사업 총체적난 극, 경기도미술관
- 2012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2012 박달동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 2012 서울문화재단 재능나눔콘서트(9~11월), 서울시
- 2012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공연사업기획 및 선정
- 2012 2012 예술로 키우는 어린이의 꿈 기획 및 선정, 경기도 문화의 전당

SELECTED PERFORMANCE & EXHIBITION (2008~)

- 2012 Opening Concert of the 2011 Gaga Hoho Project
- 2012 Selected 2012 cultural and art education supporting programs
- 2012 Selected 2012 social, cultural and art education supporting programs
- 2012 Coordinating Gyeonggi Children’s festival on Children’s day
- 2012 Coordinating Academy Media at Lee Eung-noh House
- 2011 Residence program at Iran
- 2011 Open Folk Concert at National Folk Museum
- 2011 Selected regional cultural and art education supporting programs
- 2011 Completed regional culture professionals training at home and abroad (Germany)
- 2011 Coordinated Seoul and Gyeonggi Culture Federation Concerts
- 2011 Consulted and monitored cultural and art education (music) in Incheon
- 2011 Goyang Lake Art Festival (selection of performers included)
- 2010 Performed Woodo Nongak at National Namdo Classical Music Institute

- 2012 2011 가가호호 프로젝트 오프닝공연, 경기문화재단, 스톤앤워터
- 2011 인계시장(In kye- Market) 콘서트
- 2011 서울문화재단 재능나눔, 경기문화재단 형형색색 콘서트 진행(9~11월)
- 2011 국립민속박물관 일요일런민속무대
- 2010 2010 개인 발표회 시리즈 날뜰 선정 피리, 송미경의 무대
- 2010 고양호수예술축제 자유참가부분 공연 및 발견 GYLAF 수상
- 2010 국립민속박물관 일요일런민속무대
- 2010 2010 APAP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무늬만고물상 페스티벌 초청연주
- 2010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레지던시 오픈공연
- 2010 국립남도국악원 금요상설초청,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정기연주회 공연
- 2009 통의동 보안여관 낭만적 부락 오프닝 공연 Love, 사랑
- 2009 2009 ART-LINK Exhibition, 백남준아트센터
- 2009 2009 ART-LINK 오프닝 공연 - 青春, 청춘: 콘서트, 백남준아트센터
- 2009 Hana Art Center - Performance & Presentation, Japan
- 2009 일본 하나아트센터 레지던스 선정, 경기문화재단
- 2008 서울무용계 경판24장본 자유경연부분 음악연출 및 수상
- 2008 남산풍류마당축제, 남산국악당 가을콘서트, 하이서울페스티벌 연주

박재영

Downliet.park@gmail.com



박재영 작가는 잊혀진 과학사나 대안적인 역사에 관심을 지녀왔다. 작가는 표면적으로는 과학의 이름이나 과학적인 방식을 빌리는 듯 하지만 다른 한편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설화나 신화속 소재들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특히 박재영에 따르면 신화 속 가상의 동물들은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충돌의 과정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즉 특이하고 익숙하지 않은 동물들이 새로운 문화권에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구전을 통하여 그 형태가 과장되거나 왜곡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레지던시에서도 박재영은 일본과 한국의 설화속 동물인 보카이센(Bokaisen)과 함께 이란의 여러 곳들을 여행하게 된다. 일종의 외계 동물이 낯선 곳에 착륙하듯이 이란인들과 보카이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동물의 변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작가의 계획이다.

박재영은 2010년 서울 시립미술관의 시티넷 전시와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 신호탄전에 참여했으며 2011-2012년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전시에도 참여하였다.

Jaeyoung Park

Downliet.park@gmail.com

Jaeyoung Park has been interested in the unofficial or alternative history of science replete with superb, yet relatively unknown scientific theories and inventions. The artist appropriates allegedly scientific methods; however, underlying subject matters originates from superstitious fables and myths. The imaginary animals in myths are, according to Park, generally formed by the collision in between different cultures. And these animals are the results of cultural cross-over in that the animal's shape become exaggerated and distorted when they are introduced in new cultural contexts. In Iran, to experiment with his hypothesis as well as to provide an important case for the future evolutions of the forms of unfamiliar and mythic animals, Park brought Bokaisen to the Nomadic Residency. Park's plan is to introduce Bokaisen to Iranians and Iranian contexts to stimulate its transformation and the advent of Bokaisen's hybridized animal in Iran—as it this introduction is comparable to an alien landing on a different planet.

Jaeyoung Park participated in the 2010 City Net exhibition at Seoul Museum of art, 2011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s Flare exhibition. He was also a member of “From Yeoido to Incheon” (2011-12).

CV (b. 1981)

교육

200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조소전공 수료

200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전공

개인전

2011 Downleit Electronics, 브레인 팩토리

2008 Bokaisen Studies, 덕원갤러리

주요 그룹전

2012 기계는 무엇을 구걸하는가, 송원아트센터

2012 예술가들의 연구실을 개방하다, 인사미술공간

2011 여의도 공원에서 인천공항까지, 일민미술관

2011 진실은 진심이다., 아트센터 보다

2011 retro, 덕원 갤러리

2010 City net Asia, 서울시립미술관

2010 빅 브라더, 쿠로리아 갤러리

2009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2009 New Currency Seoul & NY, 아트 스페이스 하이브

2008 현실과 허구의 경계읽기, 서울시립미술관

CV (b. 1981)

EDUCATION

2009 Completed M.F.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Received B.F.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LO EXHIBITION

2011 Downliet Electronics, Brain Factory

2008 Bokaisen Studies, Duk Won Gallery

SELECTED GROUP EXHIBITION

2012 What does Machine Want? Songwon Art Center

2012 In the Laboratories of Modern Prometheus(es), Insa Art Space of the Arts Council Korea

2011 Up in the Air: From Yeoido to Incheon, Ilmin Art Museum, Seoul.

2011 Retro, Dukwon Gallery, Seoul

2010 City net Asia, Seoul City Museum, Seoul

2010 Big Brother, Kuroria Gallery

2009 Shinho-Tan, Kimus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08 Between the real and fiction, Seoul City Art Museum

함혜경

cosmicmen@hanmail.net



Hyekyung Ham

cosmicmen@hanmail.net

함혜경 작가는 직접 가보지 못한 장소들을 사진이나 영화, 엽서와 같이 간접적인 매체를 통하여 상상하고 재구성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들을 바탕으로 잘 알려진 엽서 이미지나 타인들이 찍어서 보내준 이미지들에 자신만의 개인적인 해석이 담긴 대사들을 삽입하여 영상작업을 제작하여 왔다. 이번 레지던시에서 작가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본 이란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이란의 모습들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작가는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그다지 많이 알고고도, 그렇다고 전적으로 무시하지도 않다. 작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만난 이란인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보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해석해 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함혜경 작가는 2004년에 AIAS(Association of Independent Art and Design Schools) 대상을 수상하였고, 그녀의 영상작업은 인미공 비디오 아카이브에 소장 되어 있다. 2011-12년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전시에 참여하였다.

Hyekyung Ham usually reconstructs her own imaginative narrative of the places where she had never visited at the time of creation, utilizing photographs, films, and postcards about and related to those places. For instance, she has produced video works by inserting subtitles of narration based upon her observation of postcards and photographs about renowned tourist attractions or, the footages that her friends had sent to her. In 2012 Nomadic Residency, she again becomes fascinate by the gap between her “Iran,” as she traveled and experience for two weeks, and an Iran, as she researched and learned through the internet and television before leaving Seoul. Here, the artist remains not entirely indifferent; nor she remains attentive to figure out the real face of Iran. She strives to maintain a certain distance from her original materials and wishes to interpret the stories photographic, and filmic images stories of Iranians from her very personal, fictional and subjective point of view.

Hyekyung Ham received the grand prize from the AIAS (Association of Independent Art and Design Schools) in 2004, and her film works are collected in the Insa Art Space Video Archive. She also participated in “From Yeoido to Incheon” (2011-12).

- CV (b. 1983)
- 교육
- 2006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Cergy
- 2005 계원조형예술대학교 매체예술학과 특별과정
- 2004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시간예술학과 전공
- 수상
- 2004 AIAS(Association of Independent Art and Design Schools) 대상
- 주요 그룹전
- 2011 여의도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일민미술관, 서울
- 2007 “열” Yeol, 인사미술공간, 서울
- 2005 Plurisensoriel 4, Le Centre Culturel de Flaine, 그르노블
- 2005 용장아래 약졸없다, 희망갤러리, 서울
- 2005 안녕 언니오빠들, 갤러리27, 서울
- 2004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Cergy
- 교류전, 프 랑스문화원, 서울
- 2004 구름 Rolling Space,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04 AIAS(Association of Independent Art and Design Schools), 암스텔담

- CV (b. 1983)
- EDUCATION
- 2006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Cergy, Paris
- 2005 Time Based Art Baccalaureate program in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Seoul
- 2004 B.F.A. in Time Art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Seoul
- AWARDS
- 2004 AIAS(Association of Independent Art and Design Schools), Amsterdam, 1st prize
- SELECTED GROUP EXHIBITION
- 2011 'Up in the Air: From Yeoido to Incheon,' Ilmin museum of art, Seoul
- 2007 Yeol, Insa Art Space, Seoul
- 2005 'Plurisensoriel 4', Le Centre Culturel de Flaine, Grenoble
- 2005 Rainbow Gallery, Seoul, KR 'No possible feeble men under Gallant general'
- 2005 Gallery 27, Seoul, KR, 'Hello, sisters and brothers'
- 2004 France Culture Center, Seoul, KR 'Face to Face'
- 2004 Arko Art Center, Seoul, KR 'Rolling Space'

- 2004 Young Video Show Show Show, 팝지스페이스, 서울, 한국
- 2003 시간의 결정 Crystal of Time, 덕원갤러리, 서울, 한국
- 주요 영화상영
- 2009 'Everyday life within Insa Art Space',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09 'VIDEO:VIDEO&0',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07 IASmedia screening 2007, 서울아트시네마, 서울
- 2007 비디오아트 비엔날레 2007, 쿤스트뮤지엄, 독일
- 2007 VIDEO in SEOUL 2007, 미로스페이스, 서울
- 2004 인천방송(ITV) <포토에세이> 방송
- 2003 제3회 인디비디오 페스티벌, 일주아트센터, 서울
- 2003 방콕 필름 페스티벌, 방콕
- 워크숍
- 2007 신진작가수첩 2007, 인사미술공간, 서울
- 2004 건축가 송재호 워크숍,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2004,' 서울
- 2004 디지털 미디어 아트 워크숍 Blindsound, 서울

- 2004 AIAS(Association of Independent Art and Design Schools), Amsterdam
- 2004 SSamzie Space, Seoul, KR, 'Young Video Show Show Show'
- 2003 Duckwon Gallery, Seoul, 'Crystal of Time'
- SELECTED FILM/VIDEO SCREENING
- 2009 Arko Art Center, Seoul, KR, 'Everyday life within Insa Art Space'
- 2009 Arko Art Center, Seoul, KR, 'VIDEO:VIDEO&0'
- 2007 Cinematheque, Seoul, KR, 'IASmedia screening 2007'
- 2007 Kunsthau Gra, Bonn, DE, 'Video Art Biennale 2007'
- 2007 Mirospace, Seoul, KR, 'Video in Seoul 2007'
- 2004 Incheon Broadcasting (iTV), Incheon, KR 'Photo essay'
- 2003 Ilju Art House, Seoul, KR '3rd Indie Video Festival'
- 2003 Bangkok Film Festival, Bangkok, TH
- WORKSHOP
- 2007 'TOOL BOX for Emerging Artists' Insa Art Space, Seoul
- 2004 Architect Jae-ho SONG workshop, Seoul,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2004'
- 2004 Digital Media Art Workshop, Blindsound, Seoul

기획자
고동연

www.dongyeonkoh.org
dykoh@yahoo.com



Dongyeon Koh

www.dongyeonkoh.org
dykoh@yahoo.com

EDUCATION

2006 Ph. D in Art History (Post-1945) & Doctoral Certificate, Film Theory,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Y

1999 MA Certificate in Museology, New York University, NY

1996 M.A. in Art History (Moder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3 B.A. in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PROFESSIONAL EXPERIENCE

2012 Selected for ROK-Iran Residency (Nomadic Residency-Arts Council Korea), Seoul

2012 Selected at Insa Art Space Opencall, Arts Council Korea, Seoul

2011 Awarded Donga Exhibition Opencall, Donga News Paper and Ilmin Cultural Foundation, Ilmin Art Museum, Seoul

교육

2006 뉴욕시립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Ph. D)/영화이론 박사자격증, 뉴욕

1999 뉴욕대학교 대학원 박물관학, 석사자격증, 뉴욕

1996 이화여자대학원 미술사학과(현대미술전공), 석사

1993 이화여자 대학교 장식미술학과(복식전공), 학사

주요 전시기획 및 경력

2012 ROK-이란 레지던시 기획(노마딕 레지던시-한국문화예술위원회), 테헤란

2012 인사미술공간 전시기획공모 당선(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11 동아미술제 전시기획공모 당선(동아일보와 일민문화재단 후원), 서울

2011 - 2012 신도리코 작가 지원프로그램(SINAP) 심사위원 [공동심사: 영국 서펜타인 갤러리 디렉터 한스 올브리히 오브리스트], 서울

2008 화랑 아트 2021(예화랑 소속) 공동 디렉터, 전시 기획 [21회], 서울

2009 경기 창작센터, 2009 레지 아티스 국제 학회 기획, 안산

2005 레리 리버스의 아카이브 연구소 어시스턴트(현재 리버스 재단 <http://www.larryriversfoundation.org>), 브리지햄튼, 뉴욕주

1998-1999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큐레이터 분과(스펙터/영) 인턴, 뉴욕

2011 - 2012 Sindorico Artist Support Program (SINAP) (Committee and Jury with Hans Ulbrich Obrist

2008 Co-Director of Art 2021, Seoul (21 Exhibitions)

2009 2009 Res Artis Meeting(International Conference), Gyeonggi Creative Center, Ansan

2005 Research Assistant at Larry Rivers Archive (Currently Larry Rivers Foundation <http://www.larryriversfoundation.org>), Bridgehampton, NY

1998 - 1999 Intern at Curatorial Dept.(Specter/Young), Guggenheim Museum of Art, NY

SELECTED PAPERS AND CONFERENCES (21)

2012 “The Vietnam War and The Memory of Material Culture” The Korea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35, pp. 121-160.

2012 “Choe Jung Hwa’s Plastic Paradise: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Consumer Culture and Korean Contemporary Art in the 1990s,” ‘Art History Forum’, Ewha Womans University

2012 Unmaking National Manwha, Korean Journal(Unesco), vol. 52 no.1, pp. 171-206.

주요 국제/국내 학술발표 (21회)

2012 06 “베트남 전쟁과 물건의 기억,” 미국사연구 , 제 35집, pp. 121-160.

2012 05 “최정화의 플라스틱 파라다이스: 1990년대 대중소비문화의 분화와 한국현대미술,” 미술사 포럼, 이화여자대학교.

2012 03 “내셔널 만화와 만화 캐릭터를 만들거나 허물다 ((Un)Making National Manwha),” 코리아 저널 유네스코, vol. 52 no. 1, pp. 171-206. (HCI & A)

2011 04 “전지구화 시대의 중국 현대미술과 비평: 우홍과 실험적인 예술 vs. 가오 밉루의 트랜스 내셔널 ‘아방가르드,’ 현대미술사연구 제 29집, pp. 69-99.

2010 02 “ 서평: 제임스 엘킨스, 미술사는 글로벌한가?,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 제 32집, PP. 269-277.

2010 09 “무라카미의 ‘작은 소년’ 신드롬: 일본과 미국 미술에서 과연 희생양인가 혹은 공격자인가(Murakami’s Little Boy Syndrome: A Victim or Aggressor in Contemporary Japanese and American Art),” Inter-Asia Cultural Studies, 런던, vol. 11 no. 3, pp. 393-412. (HCI & A)

2009 03 “다른 언니들이 온다: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전시회 프로젝트 L 심포지엄 ‘여성주의의 현황(Feminism Now),’ 미국 브룩클린 미술관, 뉴욕

주요 전시도록 및 비평문 (33편)

2012 “광주비엔날레 특집,” 게스트 에디터 겸 “라운드 테이블의 득과실,” 공간, 10월

2012 “말(예술)이 해석을 필요로 할 때,” 글과 그림 , 원앤케이 갤러리

2011 Chinese Contemporary Art and Art Criticis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Journal of Modern Art History, vol. 29, pp. 69-99.

2010 Review: James Elkins, Is Art History Global?,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Western Art History, vol. 32, pp. 269-277.

2010 “Murakami’s Little Boy Syndrome: A Victim or Agressor in Contemporary Japanese and American Art,” Inter-Asia Cultural Studies, Routledge, London, vol. 11 no. 3, pp. 393-412.

2009 “Different Eonnis are Coming: Project L,” Feminism Now, Symbolism on Post-Feminist Art, Brooklyn Museum of Art, NY

SELECTED ARTICLES AND CATALOGUES (33)

2012 Gwangju Biennale, Guest Editor and “Pros and Cons of Roundtable,” Space, October.

2012 “When Words Needs Interpretations,” Word and Image, One & J Gallery, Seoul.

2012 “How to Deal with the Violent Scenes in Contemporary (Late) Photography,” Wolgan Misool, September.

2012 “Cindy Sherman, Post-Feminism, Then(1980s) and Now,” Wolgan Misool, July.

2012 “폭력적인 자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월간 미술 , 9월

2012 “신디 셔먼, 포스트 페미니즘, 그때(1908년대)와 지금,” 월간미술 ,7월

2012 “미술대학 교육과 실용주의: 리서치로서의 예술박사 프로그램, 아트인컬처 , 2월

2010 “박기원의 (탈)장소성” 2010 올해의 작가: 박기원 국립현대미술관 본관

2008 “Platform2008:Close Encounters with Space, History, and Memory(플랫폼 2008 리뷰),” Flash Art International On-Line, January.

2007 “Defining Asian-ness at ACAF NY 2007, M/The New York Art World, vol. 11, December.

학술관련 및 저서

2011-2012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 연구지원 “전지구화 시대의 동아시아 현대예술: 일본, 중국, 한국의 팝아트와 노스텔지어” 선정

2012 현대미술사학회 임원(출판)

2012 ‘한국식’ 아톰 보이: 한국예술과 문화에서 일본 만화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일본만화 교육과 연구(Teaching and Researching Japanese Animation: Asian Perspectives ed. by Yokota Masao,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후반기 출판 예정

2010 Larry Rivers and Frank O'Hara: Reframing Male Sexualities in Art and Culture of the 1950s, Germany: LAP LAMBERT Academic Pub.

2012 “Art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Pragmatism: Artist Doctoral Program as Research Art,” Art in Culture, February.

2010 “Kiwon Park’s Ambivalent Site-Specificity,” Kiwon Park 2012 Artist of the Year,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Gwachon.

2008 “Platform 2008: Close Encounters with Space, History, and Memory,” Flash Art International, On-line, January.

2007 “Definining Asian-ness at ACAF 2007,” M/The New York Art World, vol. 11, December.

RESEARCH GRANT AND BOOKS

2011 - 2012 Selected as a Recipient of the Grant for Lecturers, Proposal: “East Asia Contemporary Ar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Japanese, Chinese, and Korean Pop Ar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Seoul.

2012 “Korean Astroboy Atom,” in Teaching and Researching Japanese Animation, ed. by Yokora Masao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Upcoming)

2010 Larry Rivers and Frank O'Hara: Reframing Male Sexualities in Art and Culture of the 1950s, Germany: LAP Lambert Academic Pub.

인천에서 호메이니까지
www.incheon-khomeini.com

프로그램 후원 및 기획: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협력부
노마딕 진행 및 워크숍 기획: 고동연
참여 작가: 임홍순, 임상빈, 송미경, 박재영, 함혜경

이란 예술아카데미 및 사바 문화예술기관
총괄지원: 피루자테 이란 국제부 국장
사바 문화예술기관 관장 마수드 나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모하메드 사라나바드

통역: 김인순
표지 사진: 박재영, 임홍순
번역: 벤 잭슨, 김재민, 백한나, 송수희
도록 디자인: 인진성
인쇄 및 제책: 으뜸프로세스

From Incheon to Khomeini
www.incheon-khomeini.com

Program Organizer: Arts Council Korea, International
Department
Curator: Dongyeon Koh
Artists: Heungsoon Im, Sangbin Lim, Mikyung Song,
Jaeyoung Park, Hyekyung Ham

The Iranian Academy of Arts
Program Organizer: A. Firouzaddeh, International Department
Masoud Naser, Saba Cultural and Art Institute,
Coordinator: Mohammad Saranavad

Interpretation: Insoon Kim
Cover: Photographers, Jaeyoung Park and Heungsoon Im
Translation: Ben Jackson, Jeimin Kim, Henna Peck,
Soohee Song
Catalog Design: Injin
Print: Top Process

본 도록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12년 노마딕 레지던시-이란
지원 프로그램]의 기금으로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인천에서 호메이니까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레지던시의 성과
보고를 위하여 출판되었습니다.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원고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저작권자,
그리고 인사미술공간에 있습니다. 본권에 실린 도판과 원고는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2 by the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http://www.arko.co.kr

이란 예술아카데미: # 442 탈레그하가니 크로스 길, 발리 아스르
에비뉴, 테헤란, 이란 / 전화: 66954200-5
http://website.honar.ac.ir/indexe.htm

This is catalogue published as the report of Nomadic Residency
“From Incheon to Khomeini,” the annual residency funded
by Arts Council Korea. The residency took place between
September 29 and October 12, 2012.

©2012 Arts Council Kore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mechanical, electronic,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or authors(artists and affiliated institutions).

Arts Council Korea (ARKO): 120 Saemal-ro, Guro-gu, Seoul
http://www.arko.co.kr

The Iranian Academy of Arts: No. 442 Taleghani Cross Rd. Vali
Asr Ave. Tehran, Iran / Tel) 66954200-5
http://website.honar.ac.ir/indexe.htm

